



“재계 부를 게 아니라 정부가 해법 찾아야”

홍남기·김상조 ‘경제정책 토크’
정의선·최태원 등과 비공개 만남
재계, 할 말 많지만 병어리 냉기습
“정부 간의 갈등, 정부가 풀어야”

경제정책 토크 토크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3개 그룹 총수와 만났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자재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10일엔 같은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기업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관련기사 2·18면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비공개로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실장이 각 기업 총수들에게 직접 연락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5대 그룹 총수를 만나는 방안이 고려됐지만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일본 출장으로 이번 회동에 불참했다.

이 부회장은 4일 방한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일본 경제인과 만나 돌과구를 찾기 위해 이날 급히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은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부의 대응 기조를 설명했으며 기업별 구체적 대응 방안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 문자를 보내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은 오늘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며 “대외 경제 상

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적극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 토크 토크인 휴일을 반납하고 총수들과 만난 것은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재계 의견을 수렴, 대일(對日) 메시지를 정리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해석된다.

정부는 10일 문 대통령과 기업 대표들의 회동에 맞춰 소재·부품 수급을 위한 초단기·중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 국산화 투자 확대 등을 제외하곤 진전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발표하는 대책도 기존 방안을 구체화하거나 되풀이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수출 규제 피해가 눈앞에 닥친 재계는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병어리 냉기습이다. 이번 만남이 비공개로 이뤄진 것도 이 같은 재계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본과의 정치적 타협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는 과거사를 둘러싼 정부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말 그대로 정부 리스크다.

일본 정부가 대화를 회피한다는 하소연 외에 할 말도 없는 재계 관계자들을 부를 게 아니라 정부가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일본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WTO 제소는 기간도 오래 걸릴뿐 더러 실효성도 적다”며 “한·일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불붙은 日 불매운동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국내에서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7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직원이 맥주 등 일본 제품을 진열대에서 꺼내 반쯤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전의 韓 아냐… 日 금융보복 문제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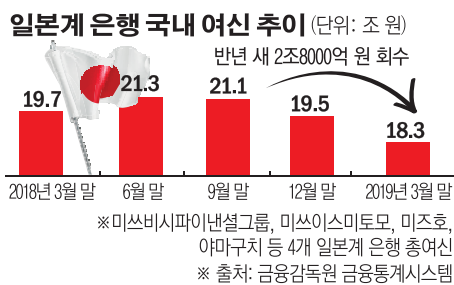
금융위 출입기자단 간담회

“엔화 끊어도 빌릴 곳 많아”
금융시장 우려에 선 그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본의 경제 보복이 금융 부문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일각의 우려에 강하게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출입기자 대상 취임 2주년 오찬 간담회에서 “최악의 경우는 일본이 롤오버(만기연장)와 신규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인데, 그렇게 돼도 대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대출, 자본시장 투자와 송금 제한 등 몇 가지 시나리오를 짚어봤는데 의미 있는 영향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 우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은 안정돼 있어,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면서 “기업에 대한 엔화 대출이 중단돼도 충분히 다른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미쓰비시파이낸셜과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야마구치 등 4개 일본계 은행의 국내 총여신은 18조2995억 원이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보면 일본계 은행의 국내 여신은 전체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총여신 77조9000억 원의 27.1%다. 중국계 은행(34.3%)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한국 금

용시장에서 일본계 은행의 입지가 작지 않다.

일본계 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한국 시장에서 자금 회수를 시작했다. 일본계 은행 국내 총여신은 지난해 9월 말 21조817억 원에서 12월 말 19조5196억 원, 올해 3월 말 18조2995억 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일본의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한 4일부터 이틀간 자체 점검을 시행했고,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국내 금융기관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일본 경제 보복을 포함, 투자·수출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정책 방향도 함께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3조 원), 친환경 설비투자(2조3000억 원), 바이오·헬스 같은 신산업 분야(5조 원) 등 총 17조 원에 이르는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삼양 계열사 ‘휴비스’ 세무조사

국세청, 역외탈세 포착

국세청이 최근 삼양그룹 계열 휴비스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휴비스는 SK케미칼 자회사인 SK신타크와 삼양홀딩스의 전략적 제휴로 탄생한 화학소재 전문기업으로 2000년 11월 1일 설립됐다.

7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휴비스 본사에 투입, 내달 중순까지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4년 이후 약 5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당시 국세청은 서울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동원, 휴비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 등 3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법인 위주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이 아닌 역외탈세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요원들이 나섰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휴비스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국내 수익 구조 외에도 해외 거래에 따른 세무 검증에 조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대법인 담당 조사국이 아닌 국제거래조사국이 조사에 나섰다면 결과적으로 역외탈세 혐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K-바이오 성공조건은 ‘인재 확보’

스페셜 리포트

인력 부족률 ‘3.5%’ 두 번째로 높아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중점 성장신산업으로 선정하면서 ‘K-바이오’의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를 넘어 고도화된 인재를 육성할 토양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3년 후인 2022년에는 8101명, 2027년엔 2만3077명이 부족할 것이라 분석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 바이오 산업이 탄력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생산시설을 키우면서 대규모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2대 산업 기술인력 부족률 (단위: %, 2017년 기준)

산업분류	부족률	산업분류	부족률
기계	2.7	전자	2.3
디스플레이	0.6	조선	0.8
반도체	1.5	철강	1.6
바이오·헬스	3.5	화학	3.5
섬유	2.4	소프트웨어	4.1
자동차	1.9	IT서비스	1.3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내놓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인력 수급 현황’(2017년 기준)을 보더라도 제약·바이오 분야의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은 3.5%로 12대 주력산업 중 소프트웨어 분야(4.1%)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구직 지원자 수가 적다고 응답한 기업은 9.3%에 불과했다. 숫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재난에 허덕이는 것

이다.

제약바이오 업계 인력난은 기업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최근 업계를 뜨겁게 달군 코로바이러스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 사태는 허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가 부족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차치하더라도 중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속도마저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학계, 정부가 협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최근 중복 오송에 한국 바이오 인력 개발센터가 문을 여는 등 인력 양성 정책이 첫발을 떤 만큼 앞으로 더욱 의지를 갖고 추진할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4개월 후면 완제품 재고까지 바닥... ‘EUV’ 발등의 불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버티기’ 마지노선은

포토레지스트 재고 일주일치뿐... EUV용은 1년내 대체 불가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어 반도체 기업 임원들 日·대만 급파

일본의 수출 규제에 국내 반도체 업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약 3개월. 완제품 재고 한 달을 합쳐 국내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최대 기간은 4개월 남짓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단,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확보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확대를 위해 하루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제품은 포토레지스트다.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재고량은 일주일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삼성전자는 하반기부터 EUV(극자외선) 파운드리 라인의 양산을 시작할 예정인데, 해당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인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해야 한다.

일반 반도체 공정에서는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를 대체해 이와 성능이 비슷한 국내나 다른 국가 제품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그러나 EUV 라인인 미세 공정을 위해 고품질 레지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없을 경우 삼성전자의 7나노 공장은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산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1년 내 대체가 불가능하다. 지금부터 레지스트를 개발하더라도 1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정도로 기술 격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급하게 일본으로 출장 간 이유도 삼성 반도체의 중요한 전략인 ‘7나노 이하 EUV 기반 초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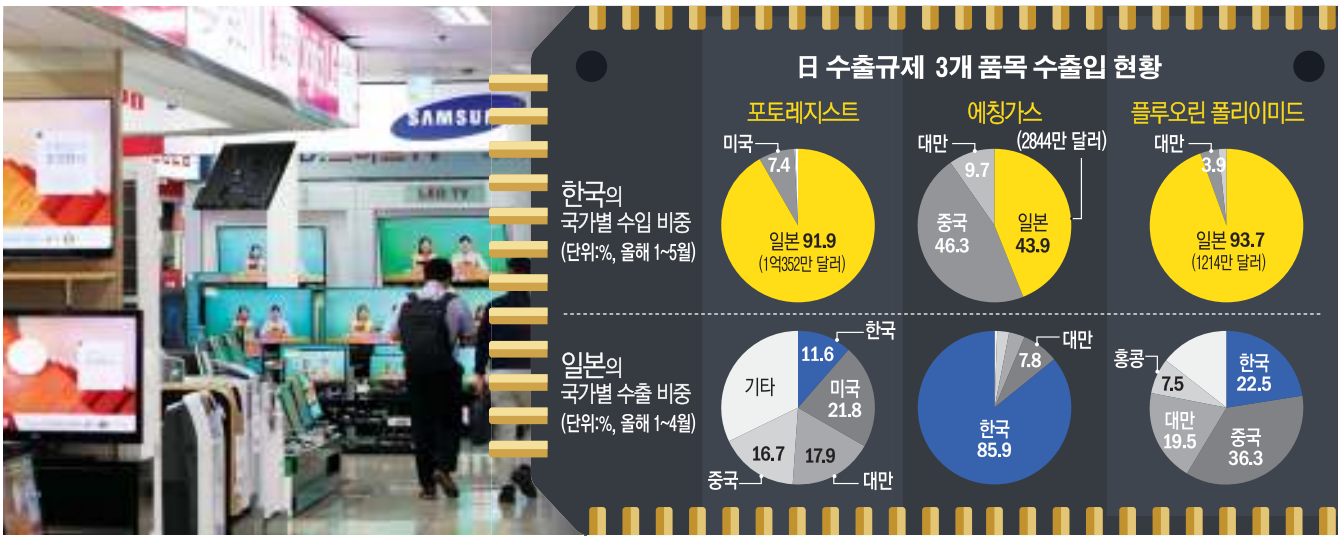
공장’ 차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 일본 현지에서 금융권 관계자 등 현지 네트워크를 만나 직접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출 규제 발표에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구매 담당 임직원을 일본, 대만 등에 급파하며 수출 규제된 물량을 구하려 했지만, 확보된 물량은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재들은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는 편이다. 에칭 가스는 일본을 대신해 대만으로부터 소재 공급이 일부 가능하다. 국내 업계는 지난해부터 일본 정부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가능성을 예상해 대비책을 마련해 왔다. 일본의 에칭 가스 점유율은 43.6%로 중국과 대만 등이 상당량을 생산하고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삼성디스플레이와 Ube Kosan과의 합작사인 SU Materials(에스유마테리얼스)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 또 국내 코오롱인더스트리, SKC 등에서도 해당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폴리이미드는 폴더블폰의 핵심소재로 많이 활용되지만, 제품 첫 출시인 올해는 매출 확대보다 ‘출시’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제품이기에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업계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반도체 업황의 변곡점을 9월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이 규제한 반도체 소재 품목을 수입하려면 계약 건별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까지는 약 9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EUV 기반 공정 전환도 계속해서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3분기 전후에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태성 기자 tskwon@



“日, 한국과 같이 망하는 길 선택”

美·中 금지 않은 시선

WSJ “애플 日 공급업체도 영향”
인민일보 “대만이 어부지리 기회”
국제적 우려에도 추가 제재 전망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새로운 제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현지 주요 언론 매체들은 연일 일본의 수출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한국과 일본의 경제 갈등이 전 세계 하이테크 산업에 민족주의적 흐름을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망 체인에 문제가 생긴 국가들이 그 대안으로 자급자족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게 됐다는 것이다.

WSJ는 2일에도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자유무역 챔피언을 자처하더니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전술을 따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등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면 애플 아이폰, 더 나아가 애플의 일본 공급업체도 연쇄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 “일본이 수세대를 걸친 식민지 시대와 관련된 분쟁을 이유로 한국에 ‘관세 해머’를 휘둘렀다며 이는 고전하고 있는 한국 기술산업에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이며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언론들도 일본의 일방적인 대한 수출규제에 금지 않은 시선을 보였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3일 “일본의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LG 등이 중상을 입겠지만 일본 기업들도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일본은 한국과 같이 망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꼬았다. 같은 날 인민일보도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 관계 경색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대만이 어부지리(漁父之利)를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3국에서조차 수출규제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일본은 제재 2탄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6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고자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맞먹는 추가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18일이 그 조치가 나올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놓고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는데 18일이 바로 한국 답변 마감기한으로 설정해 놓은 시점이다. 아베 정부는 한국 정부가 답변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 새로운 제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부의 대한 수출규제에 중국만 이롭게 하는 행위라며 반발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본 내 손꼽히는 ‘중국통’인 엔도 호마레 츠쿠바대학 명예교수는 7일 야후재팬에 기고한 글에서 “5G 필수 특허 출원 관련 중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삼성과 LG전자 등 한국 기업이 막강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아베 총리의 한국 기업 때리기는 결과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만을 기쁘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가 아닌 능력을 바라볼 때,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4차’로 가는 길… “인재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야”

인재 발굴 나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산업의 고도화로 전문 기술과 세밀한 전략이 요구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분야별 인재 영입에 안간힘을 쓰는 한편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도 특성화대학원 등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놔지만 현장 투입의 어려움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최근 코로onavirus 생명과학의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인허가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분야별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전문가 영입의 어려움 = 업계에서는 신약후보 물질 개발에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전문가가 가장 부족한 인력으로 꼽힌다. 대웅제약 AI부서 관계자는 “AI·빅데이터 전문가들은 비공개 채용, 전문가 네트워킹을 통한 인재 추천이 아니면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업체 관계자는 “인재 추천도 쉽지 않아 믿을 수 있는 교수의 연구실 내 연구원들과 미리 네트워킹을 해 놓거나 요청을 해야 겨우 뽑을 수 있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닌, 인재가 이 산업에 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김광준 세브란스차세대정보화사업추진단장(노년내과)은 “제약바이오 시장에 대한 투자가 (다른 산업보다) 더디다 보니 (4차산업혁명 관련) 인재들이 훨씬 더 미래가 밝다고 여기는 IT, 금융분야로 쏠리는 것”이라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만 매력적인 시장이 만들어지고 인재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도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며 “시장 경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으로 분야별 회사를 키워주는 것도 인재 유입에 도움이

AI·빅데이터 전문가가 가장 부족

IT·금융 등 유망 업종에 몰려
마케팅·허가등록·사업개발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첨병도 필요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 더 늘려

‘제2 인보사 사태’ 미리 막아야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해외 진출·산업 활성화 위한 인재 확보 필수 = 4차산업 관련 인재와 더불어 제약바이오 산업 전문 국내외 마케팅·허가등록(RA)·사업개발(BD) 전문가도 빠른 속도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헤드헌팅 전문 커리어앤스카우트에 요청된 국내외 제약사 15개 기업 경력직 채용 분석에 따르면 2017년만 해도 연구원 직무 채용 의뢰가 업계의 70%를 차지했으나 2018년부터 마케팅 인재 요청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올 상반기에는 전체 직무 채용 요청의 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RA, BD 요청도 2017년 대비 각각 15%씩 증가했다.

최원석 커리어앤스카우트 대표는 “지난해부터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채용 눈높이가 높아지며 전문성 있는 직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별 사업 다각화 및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BD와 RA, 마케팅 등 인력 채용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같은 상황은 실제 관련 업계가 사업을 다각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GC녹십자, 보령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등은 신사업 개발 및 전략 부문에 대한 전문 경력자나 해외 경험을 갖춘 인재 영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공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유유제약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해외 인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특히 진출 국가 특성을 좀 더 쉽게 파악하면서 인재를 확보하

2016~2018년 제약바이오기업 인력부족률 (단위: %, 31개사 대상 고용실태조사)

0~20%미만	39
20~40% 미만	38.7
60~80% 미만	19.4
40~60% 미만	3

※출처: 한국
바이오의약품협회

정부의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계획

내용	추진 시기
제약특성화대학원, 폴리텍대학 등을 활용한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2019년
아일랜드 벤치마킹한 제약바이오 교육시스템 구축	2020년
국제규격의 생산시설(GMP)을 갖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	2020년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	2019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바이오메디컬 핵심기술 글로벌 인재 양성	2019년
바이오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2020년



기 위한 전략으로 해외 대학생 인턴 도입 추진 등 글로벌 인재 리크루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전무는 “한국은 신약 개발의 역사가 짧고 완주 경험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앞으로 종합적으로 여러 분야에 접목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인력들의 배출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산업이 발전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업무인 RA·BD 등은 제약산업을 폭넓게 바라보고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야”라며 “앞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관련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이공계열 학과와 의학약학 전공자들의 융합형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인력 양성·규모 확보해야 = 업계에선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팽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력 부족이 인보사 사태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식약처의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허가심사 전담인력은 2013년 260여 명에서 현재 350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는 1품목당 5명 정도로, 밀려드는 허

가심사에 새로 배치된 인력들은 해당 산업 이해도를 높이지도 못한 채 밀린 서류들을 처리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국내의 3~5배 달하는 수준의 허가심사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허가 심사 인력은 1700명으로 바이오 의약품 심사의 경우 1품목당 40~50명이 맡고 있으며 중국도 1000명 정도가 허가심사 인력으로 근무 중이다. 식약처는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허가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인 700명으로 늘리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외국에선… 정부 주도 인재 양성

아일랜드, 전문기관서 매년 4000명 배출 벨기에, R&D인력 원천징수세 80% 면제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우는 선진국의 경우 시장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주도하에 인재 양성의 토양을 가꿔가고 있다.

가장 탄탄한 교육기관으로 꼽히는 곳은 아일랜드의 국립바이오공정연구교육센터(NIBRT)다.

NIBRT는 글로벌 제약사에 인력을 공급하고 직무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 아일랜드 투자청(IDA) 주도로 만들어졌다. 프로그램에 따라 1년 또는 2년 6개월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에 취업하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7개 종합대학과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협력해 매년 4000여 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한다.

벨기에도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원천징수세

80% 면제 △특히로 최대 80% 면제 등 바이오벤처 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 혜택을 제공해 준다.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 주도로 별도의 교육기관을 설립해 국비 교육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대졸 인력 가운데 바이오기업에서 일할 만한 인재를 따로 뽑아 전액 국비로 18개월간 교육시킨 뒤 바이오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식으로 국가에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의약품 허가등록(RA) 전문가 양성 교육, 약학대학 내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개설 등 인재 양성에 나름대로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내실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교육 수준으로는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기 어려워 기업이 재교육을 시켜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을 향한 시작은 언제나 설레는 일입니다

DB가 당신의 꿈에 박수를 보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영향 고려해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대담=이재창 국장대우 정치경제부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 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연말 FGI(집단지음충면접) 실태조사 결과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일부 기업에서 인건비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달 중순)을 앞두고 8000원(사용자)과 1만 원(노동자)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에서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한 수준’을 강조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지난 2년 동안 29.1% 오르면서 사회적 파장이 적지않았다.

이 장관은 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일본식의 단계적 연장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고령화가 된 일본은 정년 노력의무를 시작으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일본 정책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통계 마련해 논의 기반 준비

탄력근로제 국회 입법 촉구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저소득층 고용이 주는 등 파장이 컸다.

“지난 연말 실태조사를 해보니 소상공인, 한계업종, 한계기업 등에서 인건비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함께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위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사용자측은 차등 도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으로 가능하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 차등 적용 여부를 심의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해왔으나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 우려와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의 이유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경영계가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을 위한 필요성 검토와 통계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최저임금위의 기능을 강화해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겠다.”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다. 한국당은 1년을 요구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은 산업 현장의 애로와 제도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노사합의 할 때 사업주 분들의 의견을 들었다. 6개월이면 대부분의 업무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심의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위기간 확대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연동되는 것이어서 단위기간을 무작정 확대하기는 어렵다.”

-내년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중소기업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 해당 기업은 약 2만7000여 곳으로, 이 중 약 1300여 곳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업의 준비상황과 초과근로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300인 미만 기업은 상대적으로 자체 대응 여력과 정보 접근성이 낮아 현장 지원이 중요하다. 이달부터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직원, 노무사로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년연장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인구정책TF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단기적으로는 정년 후 재고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어떤 정책을 썼는지 많이 참고하고 있다. 일본은 60세 정년 노력의무를 시작으로 몇 년 후 60세 정년의 무화, 단계적으로 기준연령을 상향하면서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 여러 가지 선

먼저 ‘정년 후 재고용’ 유도 단계적 기준연령 상향·재고용 정년연장 ‘일본식 옵션제’ 검토

택지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재정이 투입된 단기 공공 일자리가 늘고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다.

“재정 일자리가 일정 부분 고용 개선에 기여했지만 전체적으로 민간시장이 호전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통계적으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68.6%)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3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의 취업자가 늘고 있다. 고용을 늘리면서 질도 개선하는 게 일자리 정책의 과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도 고용보험은 전체 취업자의 55%만 적용 대상이다. 미적용 분들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게 급선무 아닌가.

“제조업은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부터

상황이 안 좋았다. 작년 하반기 조선업이 바닥을 치고 회복세를 보일 때 자동차 부품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최근에는 대내외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수출 부진으로 연 결돼 제조업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고용부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대해서는 위기대응반을 가동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공장이 제조업의 생산성을 업그레이드한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일지리는 결국 민간에서 나와야 한다. 기업들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반기업 정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거시지표 중 제일 나쁜 게 투자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에 둔 것이다. 고용부는 업종별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과 업종에 맞는 민간 일자리 증가를 유도해 나가겠다.”

-고용부의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국형 실업부조명칭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정부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실업 부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이나 직무경험 등을 통해 좀더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58년 서울 출생 △서울 인창고 △고려대 행정학과 △행시 26회 △서울대 행정학·미국 미시간주립대 노사관계학 석사 △고용부 고용정책관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고용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고용부 장관

정에서 저소득층한테는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 이 돈을 지급받으려면 앞에서 말한 활동을 해야만 하는 구조다. 저소득층의 경우에 소득이 없으면 아무 데나 가서 일하고 금방 그만둬 빈곤이 악순환된다. 최소한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하면서 직업훈련을 받게 해 좋은 일자리로 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당 반발로 국회 비준 전망이 불투명하네.

“비준 추진과 협약 주요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측이 제기하는 쟁점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추진할 것이다. 관련 쟁점들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문제이자, 통상관계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경영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고용 유연성 확보가 급선무라는 지적도 많다.

“과거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

최소 생계 위한 수당 주면서

직업훈련 통해 좋은 일자리로

고용유연성 폭넓게 접근해야

외돼 온 계층들의 권익 향상과 격차 완화에 보다 중점을 뒀고, 이 과정에서 정책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연성 관련 논의는 고용 안정성 문제와 함께 균형감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EU에서는 노동유연성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해, 해고 중심의 수량적 유연성 외에 기술훈련을 통해 적응력을 높이는 기능적 유연성과 임금구조를 바꾸는 임금 유연성 등 다양한 접근과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연성의 개념을 넓혀서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임금의 연공성 완화, 직무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접근들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몇 달째 정상 운영이 안 되는 경사노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사노위가 과거 노사정위원회와는 달리 미조직 계층대표들이 새롭게 참여한 가운데 회의운영 방식의 틀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노사 간 이견이 큰 과제를 논의하다 보니, 지난 몇 개월 동안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 그런 것 같다. 급한 과제일수록 여러 사회적 주체들이 대화로 해결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본다.” 정라·박은평 기자 pepe@

與 “추경 원안 통과” vs 野 “3.6兆 적자국채 삭감”

막오른 임시국회 혐의로 예고
민주당 “민생 법안 처리 시급”
野 “北 목선 등 국정조사부터”

여야가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힘겨루기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19일까지로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추경안도 일주일 만에 처리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3조 원대의 적자국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원안 사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후속대책 등을 위한 재해·재난 관련 예산 2조2000억 원과 경기 대응·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4조

5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지난 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재해 추경 우선 심사’ 원칙을 존중하겠지만, 재해 추경만 따로 떼는 ‘분리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중 경기 대응 예산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에 해당한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야당은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액 3조60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민생 법안 처리도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에서 시급히 처리할 주요 민생입법 과제를 정했다. 핵심은 ‘경제’다. 민주당은 중점 추진할 5대 입법으로 △경제활력 제고 입법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 △민생 지원 입법 △청년 지원 입법 △SOC(사회간접자본) 안전 도모 입법 등을 제시했다.

경제활력 제고 입법 과제로는 유턴기업 지원법, 상생형 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법), 금융투자활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

법을 꼽았다.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 과제에는 기업활력법, 빅데이터3법, 수소경제법, 벤처투자촉진법, CVC(벤처캐피탈)법이 포함됐다. 민생 지원 입법 과제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기술창업금지법, 택시운송산업발전법, 농업소득보전법이, 청년 지원 입법 과제로는 청년기본법, 청년정치참여확대법을 선정했다. SOC 안전 입법 과제는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과 교과서 수정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월 발표했던 주휴수당 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이 포함된 ‘경제약정 저지를 위한 10개 법안’과 에너지 안보 관련 법안들이 담긴 ‘안보약정 저지 5법’, 드루킹 재특검법 등 ‘정치약정 저지 8법’과 ‘비리약정 저지 2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규제개혁법 △신성장육성법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을 우선 처리법안으로 정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오늘 윤석열 청문회… 여야 화력 집중

도덕성·검찰 개혁이 쟁점

8일 열리는 윤석열(사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선 전용산세무시장 뇌물 수수 사건 개입 의혹,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까지 다양한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검찰 출신 김진태·정점식 의원을 ‘저격수’로 투입하는 등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 장모를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며 “윤 후보자 장모인 최모 씨는 그동안 많은 고소·고발과 진정을 받아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후보자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



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장모에게 사기 피해와 변조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장모에 대해 어떤 고소도 제기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자 처가와 관련한 도덕성 논란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한국당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모 씨와 관련해 다뤄질 사안은 사기 사건 연루 의혹,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의혹, 동업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관련 의혹 등 3건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윤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는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 전원이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조현정 기자 jhj@



한국당, 日 경제 보복 대책회의 자유한국당이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연합뉴스

의원들 “튀어야 산다”… ‘명함의 정치학’

노웅래, 뒷면에 메모란 마련
도종환 ‘꽃은 져어도…’ 시 새겨
김진태, 얼굴 사진에 슈퍼맨 합성

21대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맞춤형 명함’으로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90 x 50mm’ 규격의 종이에 한자 이름과 금배지 마크를 담은 과거 명함 대신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독특한 명함이 주목받고 있다. 명함 뒷면에 메모란을 남겨 두거나 시구(詩句) 등을 넣어 소통을 강화하는가 하면 캐릭터나 색깔을 이용해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하기도 한다.

노웅래(사진 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선 의원이지만, 20대 때부터 명함 뒤면에 ‘메모란’을 마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바로 적고자 했다. 또 문제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력을 가진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시인’ 경력을 살려 직접 쓴 시구를 명함 뒤에 새겨놓았다. 현재 도 의원의 명함에는 ‘꽃은 져어도 향기는 켜지지 않는다’라는 시구가 있다.

김진태(아래) 자유한국당 의원은 명함 뒷면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슈퍼맨’ 캐릭터를 활용했다. 강인한 이미지인 슈퍼맨 캐릭터는 김 의원의 지지자가 직접 그려서 보낸 그림을 사용했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한국당 의원은 명함 앞면에 분홍색 하



트 배경에 의사 가운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넣었다. 박 의원의 명함은 생일 카드처럼 명함을 접었다 펼 수 있도록 하고, 속지를 따로 만들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갑 지도를 넣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명함에 ‘밀레니얼 핑크’ 색을 넣어 청년층에게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자신의 이름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작은 길’이라는 슬로건을 직접 캘리그래피로 새겼다.무소속 이연주 의원은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등 연령대별로 차별화해 프로필 사진을 각각 다르게 한 명함을 나눠준다.

김하늬 기자 honey@

오늘의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100% 유기농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녹차카테킨은 주원료인 녹차의 질이 제일 중요하니까, 국내산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독자적인 AP 녹차연구기술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문제적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 세 정 건강한 습관입니다

특허받은 녹차카테킨으로 한국인 건강맞춤



고열량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관리

메타그린 녹차 카테킨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를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대사 건강을 위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의 녹차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로 믿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 항산화 작용

녹차추출물과 비타민C를 함유,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대사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튜브에서 바이탈뷰티를 검색하세요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실록 농장 직접 재배 관리



제품상단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KDI “투자·수출 위축에 경기 부진 지속”

경제동향 7월호

수출·투자 부진에도 소비·고용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단 소비·고용 증가도 실질적인 수요 회복보단 외국인 관광객 급증과 재정 일자리 공급의 영향이 크다. 4개월째 경기 부진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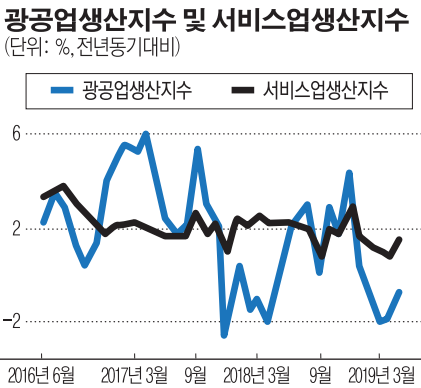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발간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둔화가 다소 완화했으나, 투자와 수출은 위축되며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광공업생산이 정체된 가운데 서비스업생산은 낮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5월 전산업생산은 조업일수가 전년 동월보

5월 전산업생산 1% 증가에 그쳐 4개월째 경기 부진 판단 이어져
관광객 늘며 소비 둔화 다소 완화
고용은 정부 정책 영향으로 증가

다(이하 동일) 2일 증가했음에도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업(1.6%)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7%) 증가에 힘입어 증가 폭이 전월 1.5%에서 2.1%로 확대됐으나, 광공업생산은 반도체(13.4%) 증가에도 전자부품(-10.3%)과 석유정제(-7.9%) 등의 부진으로 0.2% 감소했다.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전월(72.7%)에



이어 71.7%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제조업 출하는 내수(-3.2%)와 수출(-0.6%) 부문에서 모두 감소했고, 재고율은 118.5%로 올랐다. 이에 따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98.6)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8.1)는 기준(100)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건설·설비투자도 각각 5.3%, 11.5% 감소했다. 건설투자에선 건축 부문, 설비투자에선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이어졌다. 수출도 반도체와 석유류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6월 13.5% 감소, 전월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품목별로 자동차(8.1%)가 증가했으나 반도체(-25.5%), 석유화학(-24.5%), 석유제품(-24.2%)은 큰 폭으로 줄었다. 투자 선행 지표인 자본재수입액도 21.6% 감소하면서 투자 위축이 이어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나마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4월 1.4%에서 5월 3.4%로 확대됐다. 업태별로는 면세점(28.2%)과 백화점(4.7%), 품목별

로는 화장품(12.8%)과 의복(6.0%)이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다만 소매판매액 증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수요 회복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KDI는 “5월 소매재고액지수가 7.1% 증가한 가운데 6월 소비재수입이 9.3% 감소하고, 소비자심리지수도 기준치(100)보다 낮은 97.5를 기록해 소비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5월 취업자 수도 서비스업(30만5000명)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보다 25만9000명 증가했다. KDI는 취업자 증가에 대해 “정부 일자리정책의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휘발유 가격 1500원 밀들며 ‘안정세’

전국 휘발유 가격이 ㄹ당 1500원을 밀들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주간 단위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ㄹ당 1495.7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한은 “무역분쟁 타개 위한 中의 단기 부양책, 한국엔 毒”

제조업보다 단기 효과 있는 인프라 투자... 중간재 수출 韓 타격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이 단기성장전략을 펼 경우 한국엔 되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중국의 단기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세 둔화가 악화하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5.6%로 지난해 같은 기간(5.9%)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세는 경제구조 개혁과 디레버리징 정책으로 2010년대 들어 빠르게 둔화했었다. 생산요소투입 위주의 투자 증대가 양적 성장엔 효과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초래한 과다부채와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은 지속가능성장을 위협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2009년 30% 수준에 달

했던 증가율은 지난해 5분의 1(5.9%) 수준으로 하락했었다.

최근 투자재개 움직임은 구성 항목별로 보면 인프라와 부동산개발 등 제조업 이외의 투자 증가세 확대에 기인한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인프라투자는 철도와 고속도로 등 대규모 운송인프라투자 확대로 지난해 9월(전년 동기 대비 3.2%) 이후 완만하게 반등(올 5월 5.0%)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투자 증가세도 올 5월 현재 10.9%를 기록해 2015년 2월(11.3%)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했다. 반면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하반기 9.5%에서 올 5월 2.7%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부진 등 대외 부문에서의 성장둔화압력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정책파급시차가 짧은 인프라투자 확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

성이 높다고 봤다. 부동산개발 투자도 지난해 크게 확대된 건축착공면적(2017년 전년 동기 대비 7.0%→2018년 17.2%)과 부동산 개발용 토지매입비용(2017년 23.4%→2018년 57.0%) 등이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로 이어지면서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정기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소비 중심의 내수기반 확충과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 축소 등 질적 성장전략을 추진 중이던 중국 경제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단기적으로 성장전략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며 “경기대응을 위해 제조업 투자보다 인프라 투자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제조업 투자와 생산회복이 장기간 지연되면 대중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관련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정부, 태평양동맹으로 FTA 확장... 중남미 시장 개척 속도

한국이 태평양동맹(PA)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중남미 시장 개척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로 태평양동맹 측과 6일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태평양동맹은 멕시코와 페루, 콜롬비아, 칠

레 등 중남미 4개국으로 이뤄진 지역경제 연합이다. 첫 협상은 9월 열린다.

태평양동맹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 회원국과의 교역에서 관세·비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FTA 체결과 같은 효과를 낸다. 지난해 7월 준회원국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지 1년 만이다.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은 사실

상 멕시코 시장 관세장벽 완화를 노린 포석이다.

한국은 PA 회원국 중 멕시코를 뺀 나머지 나라와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5년 양자 FTA 협상을 시작했지만 2008년 멕시코 기업들의 반대로 협상이 중단됐다. 멕시코는 한국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로 지난해 114억58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남해 바닷모래 오늘부터 채취

1년간 총 243만㎥ 허용... 공공사업용으로만 가능
이해당사자 간 협의 완료... 서해안 채취도 협상 중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8일부터 재개된다. 채취가 금지된 지 2년 6개월 만이다. 다만 채취금지기간과 심도 규제가 신설되고 공공사업용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14면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됐던 남해 EEZ에서의 모래채취가 이해당사자 협의 완료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바닷모래 채취 물량을 총괄재 대비 2017년 11%에서 2022년 5%로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수급 정책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재개를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수산업계 등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와와의 원만한 정책조율과정을 통해 남해 EEZ

골재채취를 위한 행정절차 등 후속조치사항을 완료했다.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내년 8월까지 향후 1년간 총 243만㎥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이 중 올해 허가물량은 연말까지 112만㎥이고, 잔여물량은 내년 1월 허가된다.

다만 허가물량에 대해 친환경 관리 차원에서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채취금지기간(4~6월)이 설정되고 광구별로 채취물량 할당 및 채취 심도(10m) 제한과 함께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채취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1분 충전으로 600km 가는 전기차 연구”

산업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 확정... 내달 6일까지 모집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속 충전 자동차 등 산업계 난제 해결에 나선다.

산업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 지원 대상 과제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단기적 사업성보다는 난제 해결을 통한 신시장 창출 가능성, 기술 혁신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둔 R&D 지원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 가운데 1분 충전으로 600km를 주행하는 전기차가 포함됐다. 산업부는 과제가 성공하면 내연차 중심의 자동차 시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기·항공 등 다른 분야에도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는 태양 전지의 효율을 이론적 한계(30%)를 5%포인트 이상 향상한 ‘슈퍼 태양 전지’와 100m를 7분 안에 주파할 수 있는 ‘로봇 슈트’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지원 과제로 선정했다.

유리창형 태양전지, 실외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자동차, 카르노 효율(열에너지를

운동으로 변환하는 효율) 한계에 근접한 히트 펌프 등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다.

산업부는 과제별로 연구 기관 세 곳을 선정해 최대 2년간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2021년 본(本) 연구 단독 수행기관을 결정한다. 본 연구 기간은 5년으로, 연구 결과 평가는 등급 부여가 아닌 성과 발표회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업부 측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산업의 난제에 해당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모험적인 연구개발 과제인 만큼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론을 가진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공고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이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한화생명 스페셜통합종신보험 무배당 [저해지환급형]

- ☑ 상황에 따라 자금활용이 자유로운가? **중도인출, 연금지급을 위한 다양한 옵션!**
- ☑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합리적인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저해지환급형이니까!**

저해지환급형이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중도인출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연금선지급서비스 신청은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hanwhalife.com

상담문의 080-365-6363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9-01345호(2019.04.09) 준법감사인 확인필 CS19-05-30



美-中, 대화 물꼬 텃지만… ‘화웨이·관세 철회’ 기사움

무역전쟁 1년… 전화 협상 재개
구체적 방안 언급 없이 속도 조절

中, 전면적 관세 철회 강경 자세
美, 화웨이 블랙리스트 유지 고수
양국 의견차에 협상 장기화 전망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재개됐지만 중국이 관세 철회를 요구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전화 협의를 통해 무역협상을 재개했다고 밝혔으나 중국 측은 협상 타결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전면적인 관세 철회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양국은 이날 무역전쟁 1주년을 맞았다. 미국 정부가 1년 전 바로 이날 340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극한 대립을 보이던 미·중은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담판을 통해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오른쪽)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USTR)가 5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USTR 본부에서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미중 고위급 무역 대표들은 5일 전화통화로 무역협상을 재개했다. 워싱턴D.C./AP뉴시스

장관이 류허 중국 부총리와 5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새로운 무역협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은 5월 10일 워싱턴D.C.에서의 회동에서 양측이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 이후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전화통화에 이어 양측이 언제 직접 얼굴을 맞대고 협상할지에 대해서 커들로 위원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미·중 전화협상에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으며 “대면 회동이 가까운 미래 어느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며 “그러나 특정 시간표는 없다. 중요한 것은 품질이며 속도에 안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4

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다면 모든 관세는 철회돼야 한다”며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고 일관됐다”고 말했다.

중국 국영 경제일보가 ‘타오란 노트’라는 계정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는 5일 웨이보에 “미국이 발동한 처벌적인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측의 가장 중요한 요구”라며 “이것이 없다면 미·중 무역회담이 되돌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과 관련해 “상무부가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지만 화웨이는 블랙리스트인 ‘엔티티 목록(Entity List)’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반도체인 무엇이든 국가안보가 걸린 분야는 절대 허가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중국 경제모델 전체를 해체하는 것 이외에 백악관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중국이 이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타결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 소재 베이커맥켄지의 존 코울리 국제무역 전문 선임 변호사는 “미국이 지금까지 시행된 모든 관세를 철회하는 시나리오의 현재 전혀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며 “미국은 중국 경제구조에 대해 매우 뿌리깊은 우려가 있으며 이런 불안을 제거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中 드론 날개 꺾는 ‘美 의회’

국가 안보 위협 우려 ‘군사 목적 사용 불가안’ 통과

미국 의회가 중국산 드론 구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휴전에 들어갔지만 기술 패권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달 27일 통과시킨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미국이 중국산 드론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중국산 드론이 수집한 정보가 중국 정부나 해커들의 손에 들어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다.

미 하원도 외국산 드론 사용 금지를 담은 국방수권법을 이달 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방수권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중국산 드론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국내(드론) 제조업자들의 일자리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가 중국산 드론 구입 금지에 나선 배경에는 미군의 소형 드론 구입 급증과 관련이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뉴욕바드 칼리지 드론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군의 지난해 소형 드론 구매 예산은 약 2억8000만 달러(약 328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의 8900만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3000대 이상의 소형 드론을 구매할 수 있는 규모다. 감시정찰 및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미군의 소형 드론 활용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덴 게팅어 드론

연구센터 소장은 “갈수록 미 국방부의 소형 휴대용 드론 수요가 늘고 있다”며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드론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커지자 미 국방부는 지난해 군에 보안 위협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군사시설 감시 등에 사용되는 드론을 포함해 상업용 드론의 구매를 중단시킨 바 있다. 구체적인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 미국토안보부는 “중국 드론업체 DJI가 미국의 민감한 정보를 모으고 활용할 능력을 넓히기 위해 미 정부와 민간 기업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중국산 드론 구입은 계속되고 있다. 미 메릴랜드주의 앤드루 공군기지는 지난달 연방 계약사이트에 기지 감시용으로 중국 업체 DJI가 제작한 여러 대의 드론 구매 계획을 게재했다. 안보 우려를 이유로 구입 제한에 나섰지만 중국산 드론 수요가 계속되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중국산 드론 구입 금지가 자국 드론 제조업체 육성을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백악관은 지난달 10일 국방부에 자국 국방산업 분야에서 소형 무인 항공 시스템의 생산 관련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을 것을 권고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조기 총선 돌입한 그리스
그리스에서 7일(현지시간) 조기 총선이 시작된 가운데 아테네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우파인 신민주당(신민당) 지지율이 지난 4년간 집권했던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을 9~11%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어 정권 교체가 유력하다. 이에 그리스 정치 명문가 출신인 키타라코스 미초타키스 신민당 대표가 차기 총리에 오를 전망이다. 아테네/AFP연합뉴스

‘금리인하 반대’ 세틴카야 터키 중앙銀 총재 해임

에르도안 대통령 ‘低금리’ 고집
전문가 “새로운 경제위기 고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해온 중앙은행 총재를 전격적으로 해임하면서 새로운 경제위기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터키 정부는 6일(현지시간) 대통령령을 통해 무라트 세틴카야(사진) 터키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하는 한편 신임 총재로 무라트 우이살 부총재를 임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정부가 해임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임기 도중에 중앙은행 총재를 경질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독립성과 통화정책 신뢰성이 크게 손상돼 새로운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터키 중앙은행법은 중앙은행 총재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2016년 4월 취임한 세틴카야 전 총재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에 맞서왔다. 터키는 지난해 8월 미국인 목사 투옥과 관세 갈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극도로 대립하면서 리라와 폭락사태가 벌어졌다.

터키중앙은행은 리라화 폭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격화에 맞서고자 같은 해 9월 기준금리를 24%로, 종전보다 6.25%포인트나 인상했으며 이후 지난달까지 6차례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계속 동결했다. 다음 회의는 이달 25일 열리는데 중앙은행 총재가 임기 중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저금리를 선호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고집이다. 에르도안은

16년 집권 기간 새 이스탄불 국제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 고성장 정책을 추구했으며 이에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대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문가 대부분은 리라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터키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가 여전히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2년간 미국 달러화 대비 리라화 가치는 약 40% 폭락해 수입물가가 급등했다. 이에 서민이 식품과 연료 등 생필품을 사는 데 더 많은 값을 치르고 있으며 기업들도 원자재 조달에 허리가 휘청이고 있다. 그나마 최근 달러-리라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에 힘입어 회복 추세를 보였지만 세틴카야 전 총재 해임으로 다시 불안정해질 위기에 놓였다. 5일 달러-리라 환율 증가는 5.62리라로, 6월 초 대비 약 3.8% 하락(리라화 가치 상승)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정부 “성장·분배 선순환” vs 상의 “경기 불확실성 커”

日 ‘최저임금 1000엔 조기 실현’ 공방전

일본에서 ‘최저임금 3%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 1000엔’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기업들을 회유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향후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최저임금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전국 평균 874엔(시급)인 최저임금을 4년 연속 3% 이상 인상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네모토 다쿠미 후생노동상은 4일 자문기구인중앙최저임금심의회모두발언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 가중 평균(최저임금) 1000엔 실현의 첫 걸음이 되도록 심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최근 최저임금 기준 인상폭은 정부의 방침대로 정해왔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가 2016년 국정연설에서 매년 인상폭을 3%로 밝힌 이후 심의회는 3년 연속 3% 인상을 결정했다.

올해도 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전국 가중 평균 최저임금을 1000엔 인상하는 목표치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인상폭을 3% 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대로라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00엔이 된다.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면 소비 확대에 이어지는 것은 물론 생산성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주요 7개국(G7) 중 최저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낮은 임금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 최저임금 3% 인상은 결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이 아니다. 일본상공회의소는 5월 내놓은 긴급요망에서 “숫자 위주 인상에 반대한다”며 정부 방침에 반발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웃도는 인상폭에 대한 불만이 강하다.

일본상공회의소의 미무라 아키오 회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간의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판에 박힌 듯이 종합적으로 감안해 3%로 정해졌다. 어떻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3%에 도달했는지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일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40%에 달한다. 미중 무역 마찰 등 올 경기 불확실성이 강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영세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가 제시한 3%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수학을 포기한 사람〉

‘AI 선생님’ 만나니 수포자도 없어졌네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 현장에도 혁신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일본에서 최근 그동안의 공장형 교실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니혼게이지신문은 최근 일본 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시에 있는 긴키대학 부속 중학교에서 AI 교육 스타트업 콤파스가 개발한 앱 ‘큐비나’를 사용한 수업이 실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AI 수업에서는 교사가 칠판에 내용을 적고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과거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교사의 손에는 교과서가 들려 있지 않으며 칠판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학생 개개인이 가진 태블릿의 큐비나 앱이 또 다른 교사 역할을 한다. 큐비나가 내는 문제는 학생들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 공식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잘못 교제한 학생이 있으면 즉시 비슷한 유형의 복습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AI가 학습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분석

日 ‘큐비나’ 앱, 교사 역할 톡톡 문제 틀리면 즉시 복습문제 제시

AI 학습 과정 기록, 평가에 유용 싱가포르 ‘뉴로’ 장애 학생 교육

하기 때문에 교사의 학생 성적 평가에도 매우 유용하다. 지난해 큐비나를 도입한 도쿄 치요다 구립 고지마치 중학교는 학생들이 종전보다 약 2배 속도로 한 단원의 학습을 마무리했으며 상하위권 학생들의 성적 격차가 평균 5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다.

일본은 고령화로 AI를 통한 교육혁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일본 중학교 교사의 3분의 1 이상이 50세를 넘어 향후 인력 부족 심화가 불가피하다. 그런 가운데 AI가 학생 각각의 약한 분야를 분석하고 개개인의 관심에 따른 학습과정을 제시한다면 학생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사이타마현 교육위원회는 올해 학력 조사와 정기시험 결과를 AI로 분석하는 실험



일본 히가시오사카시에 있는 긴키대학 부속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태블릿에 있는 AI 교육 앱으로 수학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제공 긴키대학 부속 중학교

증 사업을 시작했다. 매년 30만 명의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 결과와 생활습관 설문조사 등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개별 상담과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싱가포르 교육심리학자인 응 멍렉 박사는 학습부진이나 장애를 겪는 아동을 위한 AI 학습능력 훈련 프로그램 ‘뉴로LAT (NeuroLAT)’를 개발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자폐증으로 산수 성적이 극도로 나쁜 10세의 한 학생은 매일 30분간 컴퓨터가 제시하는 다양한 문제를 푼다. 응 멍렉 박사는 “인간의 학습에는 39개 분야의 인지

능력이 필요하다”며 “뉴로LAT는 난이도가 다른 100만 문항의 문제가 수록돼 있어 수강자 눈높이에 맞춰 학습능력 자체를 단련한다”고 설명했다.

개발도상국인 네팔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교육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네팔 동부 산간마을 학생들이 차로 10시간 이상 떨어진 수도 카트만두의 우수한 교사들로부터 수업을 받고 있다.

이 실험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유미네 팔 (YouMe Nepal)’의 샤라도 라이 대표는 “네팔은 어린이들의 공립학교 학생 학

격률은 35%에 불과하다”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단순 노동을 강요당하고 계속 빈곤한 상태에 있게 된다. 원격 수업은 이런 힘든 상황을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영상 재생이나 복잡한 데이터 처리를 고속으로 할 수 있는 5G 시대가 오면 전 세계 사람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AI 교사’의 활약은 교육은 물론 세계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구글 ‘자율주행차의 아버지’ 스런 온라인으로 1000만 IT 인재 육성

구글 고위직·교수 그만두고 교육 업체 ‘유다시티’ 설립 수료생 실리콘밸리서 인기

구글 자율주행차량 개발을 주도했던 세바스찬 스런<사진>이 이제는 온라인 교육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구글 자율주행차의 아버지’로 불렸던 스런이 온라인 교육 사업에 뛰어들어 배경과 그 성과를 최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이 소개했다.

독일 출신의 스런은 원래 인공지능(AI) 학자로 명성을 날렸다. AI와의 만남은 본대학교 학생이던 1988년. 당시 스런은 철학과 심리학, 의학, 경제학 등 자신이 관심 가는 대로 다양하게 공부했지만 뇌의 기능을 본뜬 ‘기계학습’에 깊은 관심을 가져 AI 연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는 스탠퍼드대학 교수 시절인 2004년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주최한 자율주행차 경진 대회에 참가했다. 첫 도전에서는 웅덩이에서 차가 움직이지 못해 탈락했다. 그러나 다음 해 AI로 정평이 난 카네기멜론대를 제치고 우승한다.

2008년 래리 페이지 구글 설립자의 혁신에 대한 열정에 감복해 회사에 합류, 자율주행차 개발을 시작했다. 2년 뒤에는 구글의 비밀연구소인 ‘구글X’의 초대 소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2011년 봄 또 다른 만남이 스런의 인생을 다시 변화시켰다. 비영리단체 칸이카데미를 세운 살만 칸의 강연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다. 칸이카데미는 ‘MOCC(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좌)’로 불리는 교육 혁명의 시초로 꼽히고 있다.

스런은 “칸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지만 스탠퍼드에서 나의 수업은 겨우 200명의 제한된 학생만이 듣는다”며 “이에 동료와 함께 ‘AI 입문 수업’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자 상상을 훨씬 웃도는 16만 명이 등록했다”고 회상했다.

아프가니스탄 파견 군인, 미혼모에서 신장 투석 치료로 통학을 포기한 사람까지 온라인 청강생의 열정을 본 스런은 교육이



온라인 교육업체 유다시티 학생들이 구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출처 세바스찬 스런 트위터

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문샷(Moon Shot·세상을 뒤바꿀 혁신 프로젝트)’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이듬해인 2012년 스런은 구글 고위직과 겸임했던 스탠퍼드대 교수 직위도 모두 버리고 온라인 교육 스타트업인 ‘유다시티(Udacity)’를 설립했다.

유다시티는 프로그래밍과 웹 제작의 기본강의에서 AI에 이르기까지 IT에 특화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무료 입문과정에서 난해한 내용을 포함한 유료 코스까지 수강생 누계는 1000만 명을 넘었다. 그중에서도 유다시티가 직접 발행하는 학위인 ‘나노학위’를 받은 7만5000명 학생들은 실리콘밸리 기업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은 유다시티가 자체 개발한 자동차 ‘칼리’를 사용한 자율주행 엔지니어 육성 코스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는 이 코스 나노학위 취득자를 이미 40명 이상 채용했다.

스런은 “스탠퍼드에 남아서 많은 논문을 썼으면 더 큰 명성을 얻었는지 모르나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며 “50년 후에는 유다시티와 같은 기업이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는 가르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AI와 빅데이터 분석 등 고도의 IT 인재는 세계적으로 부족하다. 유다시티와 같은 교육에 특화된 스타트업이 속속 탄생하면서 실리콘밸리 기술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아직 혁신의 발상지로 군림하는 원동력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GMT 1547.1135

“SK그룹,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너지 가장 크다”

금융위 “한진칼과 2강 체제로…
원매자 요구 최대한 반영 매각
애경은 ‘노이즈 마케팅’ 불과”

금융위원회가 아시아나 매각 주체의 적
임자로 SK그룹을 지목했다.

신장수 금융위 금융정책국 구조조정지
원팀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근처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
담회에서 “현재 (아시아나 매각으로) 시너
지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곳은 SK로 보
고 있다”며 “한진칼과 함께 2강 체제로 두
고 싶는데 SK가 가져가면 반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 의사를 드러낸) 애경의 경우는 그
냥 노이즈 마케팅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
고 일축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일정

3월	22일	아시아나항공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한정’
	28일	박삼구 회장, 금호그룹 경영서 퇴진
4월	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아시아나 자구계획 제출 촉구
	10일	금호아시아나, 자구계획 제출
	11일	채권단, 금호아시아나 자구계획 거부
	15일	금호산업 이사회,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
	23일	채권단, 아시아나항공 1조6000억 지원 결정
	25일	금호산업, 매각주관사로 크레딧스위스 결정
7월	-	금호산업, 구주+신주 조합 매각 공고 예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아시아나 매각은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원매자가 있을 것
인가”라며 “우리가 충분한 능력 갖춘 항공
산업 원매자를 바라고 있다”고 입장을 밝
혔다. 다만 그는 “어떤 데가 있을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며 “금호아시아나와, 구간사,
산업은행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의 마
지막 단계 가서야 인수회사 있는 기업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올해 중 아시아나 매각 가능성
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최 위원장은
“(아시아나의 원매자는 실질적으로) 나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팀장도 “아시아나

항공은 7월 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현
재 공식적으로 부인한 곳은 롯데뿐이고,
나머지는 다들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
면서도 “가능한 한 7월 말, 8월 초까지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일환으로 금융위는 원매자들의 요구
를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
다. 최 위원장은 “만약 몇 가지 면에서 관찮
은데 한두 가지가 부족하면 보완해주는 방
법도 생각해볼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
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채무 탕감 및 금융
지원 등 매각 과정에서 원매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매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
지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분할매각 가능성
에 대한 질문에는 “분리 매각에 관심을 갖
고 있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제3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10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것”이라
면서 “토스와 키움컨소시엄에 예비인가 탈

락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해줬고 보완할 시
간을 충분히 주고자 (기준에 예고했던) 일
정을 다소 미뤘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에 대
해선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는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건은 결국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금융위
는 양 당사자가 받아들일 만한 분쟁 조정
안이 도출되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
다. 공매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 정책
방향은 개인투자자에게 기회를 좀 더 주고
차입인지 무차입인지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김보름 기자 fullmoon@

스타트업 우수 인재 중매 나선 ‘신한금융’

12~13일 퓨처스랩 채용박람회

신한금융이 우수 스타트업 기업의 인재
확보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신한퓨
처스랩 스타트업 채용박람회’를 12일부터
이틀간 을지로 소재 신한L타워에서 개최
한다.

이번 행사는 4월 발표한 신한퓨처스랩
육성 스케일업(Scale-Up) 전략의 하나
로 신한퓨처스랩의 스타트업 기업과 우수
인재의 매칭을 통한 기업의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박람회에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신한퓨
처스랩 출신 스타트업 37개사가 참가할 계
획이다. 구직분야는 개발·기획·경영지원·
디자인·마케팅 등 다양한 직군에서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표적인 참가 기업으로는 국내 간편결
제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페이민트
(신한퓨처스랩 1기)’와 운용자산 기준 국

내 1위 로보어드바이저 기업인 ‘파운트
(2기)’, 대안신용평가 기술로 금융 소외계
층에 자금 지원의 문을 열고 있는 ‘크레파
스 솔루션(3기)’, 글로벌 해커들이 모여
정보보안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스틸리
언(4기)’ 등 국내의 내로라하는 핀테크 기
업들이 인재 모집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현재 육성 프로그램에 참가
하고 있는 신한퓨처스랩 5기 기업 중 게임
의 순기능을 활용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셜벤처 ‘캠브릿지’와 생활 속 터치기술
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디엔엑스’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들도 참가해 구직
자들과 직접 만남에 나설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혁신성장 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
의 일환이다”라며 “앞으로도 신한퓨처스랩
육성 스케일업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스타트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KB금융 회장〉

윤종규 “워크 다이어트로 ‘주 52시간’ 정착”

KB금융 하반기 경영진 워크숍 “디지털 시대 부합 인재 양성”

윤종규(사진) KB금융지주 회장이
“하반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
룹 전체 ‘워크 다이어트(Work Diet)’
및 ‘워크 스마트(Work Smart)’를 통
한 주 52시간, 나아가 주 40시간 근무
체제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KB금융은 5일 KB국민은행 일산연수
원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그룹 경영
진 워크숍’에서 윤 회장이 이같이 말했다
고 7일 밝혔다. 윤 회장은 “디지털 시대
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및 채널 경쟁력
확보와 함께 고객 관점에서 KB만의 차
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윤 회
장과 각 계열사 대표
이사 및 임원 등 200
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 오전 세
션 시작은 ‘금융업

전망 및 KB에 대한 시장의 기대’라는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 KB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젊고
역동적인 ‘혁신 문화’의 그룹 내 확산
을 위해, 국내 최초 ‘바이오 인증’을 통
한 손으로 출금 서비스 및 국내 리서치
센터 최초 맞춤형 투자정보 챗봇인 ‘리
서치 챗봇’ 출시 등의 사례를 만들어 낸
직원들의 ‘혁신 Story’ 소개 시간을 가
졌다. 이 밖에 상반기 워크숍 때 실시한
‘KB다움’ 경영진 실천 다짐을 되새겨

보고, 리더의 진정한 소통에 대해 고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 오후 세션에서는 그룹의 경영
방향을 재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하반기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
층 토의를 진행했다. 디지털, WM,
CIB 등 총 11개 분야별 분임토의를 통
해 핵심 이슈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선정 후, 현장에서
전체 경영진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 하
반기 분야별 실행 방안들을 도출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하반기 그룹
의 핵심 이슈를 공유하고, 이를 성공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
안을 도출함으로써 경영진이 각오를 다
지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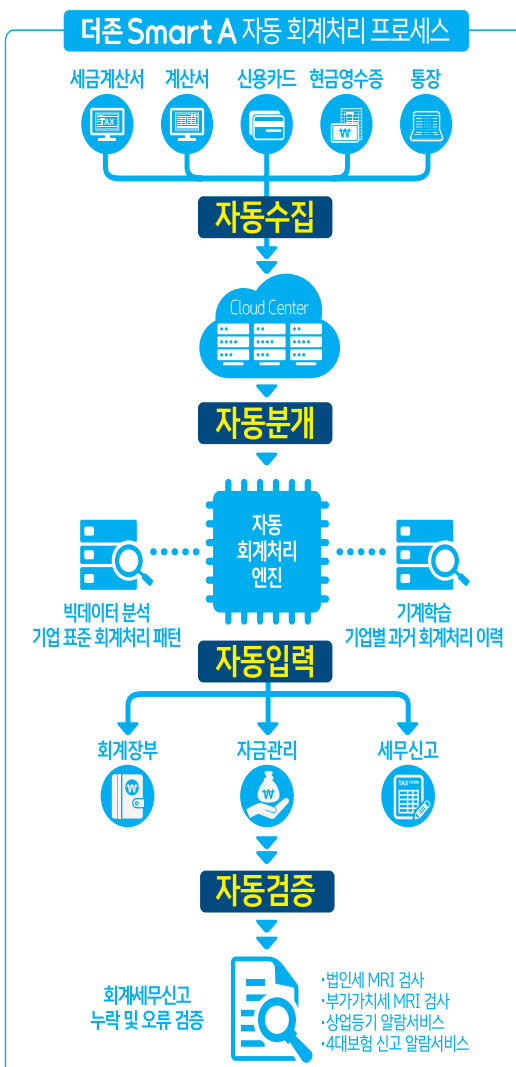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급서비스 금융CMS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화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증권, 원화만으로 가능한 해외주식을 열다

GLOBAL ONE MARKET

불편했던 해외주식을 국내주식처럼 쉽고 편하게!
원화 거래로 더 편해진 해외주식,
지금 글로벌 원마켓에서 만나세요



원화 거래로
편리하게!



당일 거래로
바로바로!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 신청 시]
*일부 통화 한정
*국민은행 실시간 매매기준율 환율적용
(외환시장 마감시 익일 환율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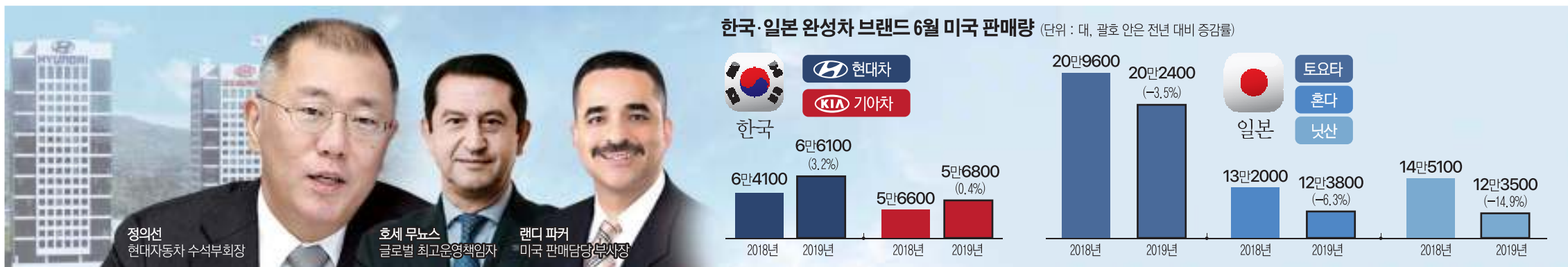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0378호(2019년1월31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글로벌원마켓]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매도시 0.0013% 제비용 별도) 일률적용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전수수료 발생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미국, 홍콩, 중국A, 일본

 KB 증권

〈북미 시장〉

닛산 인재로 닛산 잡아...상시 채용하니 모두 ‘好好’



정의선의 ‘용병술’ 효과 특독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양대 용병술(경쟁사 임원 영입·상시채용)이 국 내외에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본격적인 저성장 기 조에 접어들었고 일본차가 고전하는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이와 반대로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정 부회장이 올해 들어 속속 영 입한 글로벌 닛산 출신의 인재들이 효과를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는 공개채용을 없애고 상시채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력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있다.

6월 美 점유율 8.2%

닛산 출신 무뇨스·파커 영입

북미 마케팅·딜러망 전략 바뀌

닛산·혼다와 점유율 나란히

현업 부서 직접 채용

적재적소에 인재 즉시 투입

관리자·신입 모두 만족 커

“신사업·신기술 직무 증가”

◇미국 시장 침체 속에서 일본 제치고 선전하는 현대차 = 7일 완성차 업계와 오토모티브 뉴스 집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차의 미국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6만6089대에 달했다. 이 기간 기아차 역시 0.4% 증가한 5만6801대를 기록했다. 특히 현대차 판매는 작년 8월부터 11개월 연속 상승세다.

전체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꽤 고무적이다. 지난달 미국 자동차 시장은 전년 대비 2.6% 하락한 151만3000여 대에 머물렀다.

특히 일본차 업체들의 판매가 2분기 들어 급락했다. 지난달 토요타는 미국에서 전년 대비 3.5% 하락한 20만2352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시장 평균 하락치(2.6%)를 넘어선 수준이다. 혼다와 닛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각각 전년 대비 6.3%와 14.9%씩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반기 기준 현대기아차의 미국 총판매(64만8179대)는 독일 폭스바겐(31만8711대)의 2배를 넘어섰다. 나아가 닛산(71만7036대)의 90.5%까지 치고 올라가며 맹추격 중이다.

이 같은 북미시장 호실적 뒤에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올 초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용병술’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 부회장은 4월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와 미주권역 담당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닛산 출신 호세 무뇨스(Jose Munoz) 사장을 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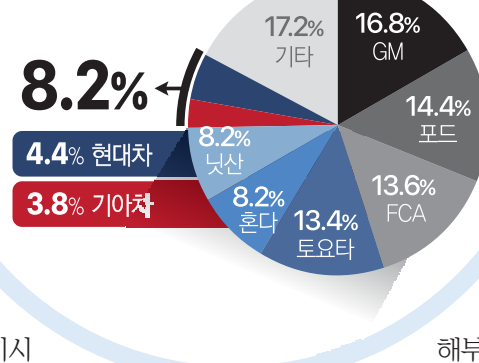
카를로스 곤 전(前) 르노닛산 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무뇨스 사장은 닛산 시절 전사 성과총괄(CPO)을 담당하며 북미시장 약진을 이끌었던 주인공이다. 혹독한 구조조정 전문가였던 곤 회장의 옆에서 판매와 마케팅 분야의 원가절감을 주도한, 이른바 ‘코스트 킬러’였다.

무뇨스 사장과 함께 영입된 닛산(인피니티) 출신 ‘랜디 파커’ 판매담당 부사장까지 합류하면서 용병술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파커 부사장 역시 미국 GM과 일본 닛산에서 30년 넘게 몸담아 온 판매 마케팅 전문가다. 5월 합류한 파커 부사장은 닛산 시절 인피니티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마케팅 전략을 주도한 주인공이다.

실제로 6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팰리세이드를 제외하면 미국에 별다른 신차가 없는 상황. 그럼에도 경쟁사의 하락세와 달리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점은 마케팅과 딜러 네트워크 전략의 변화가 효과를 낸 것으로 관측된다.

완성차 브랜드 미국 점유율 (6월 기준)



한 인재를 즉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공개채용 체계와 달리 인력이 필요한 현업 부서가 주도적으로 채용 전형에 나설 수 있게 돼 가능한 일이다.

현업 부서가 주도하는 상시채용은 동시에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 결과 신입사원임에도 곧바로 현업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을 뽑을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상시채용은 선발된 신입사원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신이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 어디에서 근무할지 인정한 상태에서 입사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상시채용 도입이 사내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HR 부서가 주도해 인재를 선발하던 과거와 달리 현업 부서가 주체가 되다 보니 인재 선발과 성장에 더욱 신경 쓰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과거 공채 시스템하에서는 HR부서가 아니면 인재 선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현업 부서가 주도하는 상시채용 체계에서는 각 부서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를 선발하고 회사에 정착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로봇, 인공지능, 스마트카 등 미래 신사업, 신기술 부문의 직무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기자 junior@

유창욱 기자 woogi@

LG전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따뜻한 기술 3년간 10만명 수혜

LG전자는 7일 지속 가능 경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는 ‘2018-2019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06년 이후 13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 건강관리가전의 지난해 글로벌 매출 성장률은 4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성장률은 57%였다. LG전자는 공기청정기, 정수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 고객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또 ‘따뜻한 기술’ 최근 3년 누적 수혜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LG전자는 제품과 기술을 활용해 세계 곳곳의 환경, 빈곤, 위생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있다. 따뜻한 기술의 수혜자는 2016년 1707명, 2017년 2만5403명, 2018년 7만5086명으로 3개년 누적 10만 명을 넘어섰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193만 톤 CO₂e(이산화탄소환산톤·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 대비 약 15% 감소했다. LG전자는 지난해 국내외 생산사업장 및 사무실에서 164만 톤 CO₂e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와 더불어 LG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내 사업장에 총 6.7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두산인프라코어 20년 만에 ‘더 밝게’ 색상 바뀌

이후 20년 만으로 더 밝고 강인한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7일 두산인프라코어에 따르면 굴착기와 휠로더, 굴절식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새롭게 적용되는 색상의 명칭은 ‘카이로스(Kairos) 오렌지’다. 카이로스 오렌지는 기존보다 더 밝은 오렌지색으로 작업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건설기계 제품의 대표 색상을 변경했다. 이는 2000년 이후 20년 만에 더 밝고 강인한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7일 두산인프라코어에 따르면 굴착기와 휠로더, 굴절식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새롭게 적용되는 색상의 명칭은 ‘카이로스(Kairos) 오렌지’다. 카이로스 오렌지는 기존보다 더 밝은 오렌지색으로 작업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올 여름휴가 평균 4일

작년보다 0.2일 증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751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19년 하계휴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하계휴가 일수는 평균 4.0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대다수는 올해 하계휴가 일수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하계휴가 일수가 증가한 기업은 응답 기업의 6.3%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하계휴가 일수를 평균해 본

결과, 올해는 4.0일로 지난해(3.8일)에 비해 0.2일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계휴가 일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은 그 이유로 ‘근로자 복지 확대’(38.3%), ‘경기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축’(34.0%), ‘연차수당 등 비용절감 차원’(19.2%) 순으로 답했다.

응답 기업의 73.7%는 최근 경기 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악화됐다고 답했다. 이는 경총이 관련 조사를 처음 실시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년과 비슷은 23.2%, 전년보다 개선은 3.1%에 불과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SK, 저유황유 공급량 4배 늘린다

내년 선박 배출가스 규제 대비 황산화물 연 10만톤 감축 효과

SK이노베이션의 석유제품 수출 및 트레이딩 전문 자회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TI)이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유황중유 사업을 키운다.

SKTI는 친환경 저유황중유 ‘해상 블렌딩 사업’을 일 평균 약 2.3만 배럴 수준에서 내년 9만 배럴까지 약 4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내년 4월부터 하루 4만 배럴 규모의 저유황유를 생산하는 SK에너지 갑판장사유 탈황설비(VRDS)가 본격 가동되면 SKTI는 일 13만 배럴의 저유황유를 공급하는 역대 최대 업체로 도약하게 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해상 연료유의 황산화물 함량을 3.5%에서 0.5%로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해상 연료유 시장은 저유황유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글로벌 연료유 시장 재편 속에서 선제적으로 저유황중유를 도입하고자 하는 선사들이 늘고 있고, 내년 말에는 과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높은 수익성이 전망된다. SKTI는 IMO 2020의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선박 연료유 시장에 선제적으로 제품 공급량을 크게 늘려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이 임차한 선박(왼쪽)이 해상 블렌딩을 위한 중유를 다른 유조선에서 수급받고 있다. 사진제공 SKTI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SKTI가 내년부터 해상 블렌딩 저유황 중유를 연간 5000만 배럴로 확대 공급하면 황산화물 배출량은 연간 10만 톤가량 줄어든다. 이는 초대형 원유운반선인 VLCC(Very Large Crude Carrier) 200여 대가 1년 운행 시 내뿜는 황산화물 양과 맞먹는 규모다. IMO 2020 규제는 SKTI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가 되고 있다. SKTI는 업계 간 연대를 통해 환경 규제에 의한 변화에 맞서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3월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부 기관과 현대상선과 같은 조선·기자재업체와 ‘친환경설비(스크러버) 설치 상생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SKTI는 이 사업을 통해 총 19척의 선박에 스크러버를 장착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SK회장〉

“행복 추구 동의하시나요”…中서도 퍼진 최태원의 행복론

SK 베이징 사업장서 행복토크
“구성원 행복이 기업 존재 이유
전체 행복 좇으면 개인도 행복”

최태원 SK 회장이 중국 사업장을 찾아 SK그룹의 존재 이유를 ‘이윤 추구’가 아닌 ‘행복 추구’라고 공언했다. 구성원의 행복 추구를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이룰 위한 구성원들의 결속을 당부했다.

7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5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아 베이징 소재 SK타워에서 SK차이나, SK하이닉스 등 8개 관계사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토크를 열었다. 5월 중국 상하이, 지난 달 베트남에 이어 이번 달에는 베이징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기업의 존재 이유를 ‘돈 버는 것’에서 ‘구성원 전체의 행복추구’로 바뀌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확



최태원(오른쪽) SK 회장이 5일 중국 베이징 SK타워에서 현지 주재 구성원들과 행복토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

보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행복을 극대화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최 회장은 앞으로 SK의 경영합수를 ‘돈 버는 것’에서 ‘구성원 전체의 행복추구’로

바뀌 나갈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그는 “우리는 회사에 출근해 함께 일을 하며 돈을 번다”며 “혼자 일할 때보다 힘을 합칠 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오랜 역사를 통해 배워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앞

으로는 전체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함께 일해 보자는 것이다. 함께 행복을 추구하면 그 크기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회장은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영어로 치면 단순한 동의를 뜻하는

‘agree’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뜻하는 ‘commitment’”라고 말하며 모든 구성원이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 하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체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개인의 행복도가 낮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최 회장은 ‘주사위 던지기 게임’을 비유로 들었다. 주사위를 몇 번 던지면 특정 숫자가 아예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수없이 던지면 결국 각 숫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올라간다. 같은 맥락에서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처음에는 개인의 행복이 낮을 수도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추구하면 결국 개인의 행복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 회장은 전체의 행복이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으로, 꾸준히 하나씩 알아가기 위해 행복지도를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우리는 구성원 전체의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며 “그래서 ‘행복지도’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자원 사업 따라…2분기 종합상사 희비

포스코인터 미안마 가스전 호조
매출 2%·영업익 17%↑ 기대
LG상사 물류 약진에도 자원 발목

국내 주요 종합상사의 올 2분기 실적이 ‘자원 사업’의 성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을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포스코인터 내셔널은 올해 2분기에 매출액 6조3235억 원, 영업이익 1591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2.3%, 영업이익은 16.9% 증가한 수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미안마 가스전’이다. 미안마 가스전은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여간 누적된 의무인수계약(TOP)의 물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30%에 가까운 증산이 기대되고 있다.

철강 부문에서는 해외 사업의 부진이 예상되나 국내 사업이 이를 만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 무역분쟁에도 무역 부문이 견조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팜오일 및 해외발전 부문에서도 고른 수익이 예상된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 식량 터미널 인수 등으로 신성장 사업이

본격화되며 향후 성장세를 더욱 넓힐 가능성도 있다.

반면 LG상사는 물류 부문의 약진에도 자원개발 부문이 실적 개선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2분기 LG상사의 컨센서스는 매출액 2조4498억 원, 영업이익 517억 원으로 관측되며 매출액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영업이익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 부문은 창고 및 내륙 운송업(W&D)과 비계열 물량의 개선에 기인해 수익성이 40%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석탄 부문의 감소로 지속으로 자원개발 부문의 수익성은 반토막 날 것으로 관측된다. 물류 부문이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지만 자원개발 사업이 이를 뒷받치지 못하는 모양새다.

삼성물산은 원자재 가격 부진으로 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다. 상사부문의 매출액은 3조5640억 원, 영업이익은 43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SK네트웍스의 상사부문은 매출액 1조1312억 원, 영업이익은 5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제재에 따라 매출 감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종합상사는 매출액 1조985억 원, 영업이익 128억 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개발부문 이익이 2016년을 저점으로 매년 회복되고 있으며 차량소재부문 역시 외형을 확대 중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LG V50 씽큐 게임 페스티벌, 하루 1000명 참가

LG전자가 본격적으로 열린 5G 시대를 맞아 전국 주요 LG베스트샵 매장과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LG V50 씽큐(ThinQ)로 즐기는 게임 페스티벌을 7일 개최했다.

이달 14일까지 열리는 페스티벌에는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참가하며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게임 대회 종목은 넷마블의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게임 대회가 열리는 LG 베스트샵과 이동통신사 매장을 찾아 게임을 즐기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LG V50 씽큐의 성능과 LG 듀얼 스크린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LG전자는 20일, 21일 양일간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대규모 오프라인 게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폐차로 만든 가방, 글로벌 車회사 눈도장 찍었죠”

인터뷰

최이현 ‘모어덴’ 대표

방탄소년단(BTS),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더해 스웨덴 국왕까지 착용한 가방. 이 가방은 폐자동차의 가죽시트, 안전띠, 에어백 등을 수거해 만든 ‘모어덴’의 업사이클링(Up-cycling·새 활용) 제품이다. 모어덴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프랑스 순방에 동행한 데 이어 지난달 북유럽 순방에 동행하며 훌쩍 큰 영향력을 입증했다.

폐차 안 가죽시트·안전벨트 등 업사이클링, 가방으로 재탄생
문 대통령 북유럽 순방 동행… 스웨덴 볼보차 등 큰 관심 보여
울릉도에 첫 패션 팝업스토어… 도서 폐기물 해결방안 모색도

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은 대통령 순방 최초로 스타트업 중심 경제 사절단이 동행했다. 내로라하는 스타트업 53개사와 소셜벤처(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가 설립한 기업 또는 조직) 6개사에서 앤젤스윙의 박원녕 대표와 함께 모어덴의 최이현(38) 대표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 문 대통령과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앞에서 소셜벤처 사례를 발표한 것이다. 당시의 떨림이 채가지지 않은 듯한 최 대표를 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모어덴 사무실에서 만났다.

최 대표가 지난달 15일 스웨덴 스톡홀름 노르른 하우스에서 열린 ‘한-스웨덴 소셜벤처와의 대화’에서 발표한 내용은 모어덴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이다. 소셜벤처는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지만, 대중들의 시선이 마냥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그는 “돈이나 벌지 굳이 왜?” 혹은 제품 질이 별로이거나 가격이 비쌀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며 “그런 시선을 바꿀 때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모어덴은 폐차를 가죽 가방으로 변신시키는 소셜벤처다. 차 안에 안전벨트, 에어백 같은 제품들은 태우지도 못하고 그냥 매립해야 한다. 모어덴의 브랜드 ‘컨티뉴’는 그런 폐차를 업사이클링해 가방으로 재탄생케 한다. 폐차 하나당 만들 수 있는 가방은 4개가량이며, 폐가죽 수거부터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개월이다.

최 대표는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청장사)에 5기로 입교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학습 때 만난 창업가와 MCM에서 상품기획을 했던 경력 단절 여성, 창업을 준비하며 색 개발을 하던 청년도 함께했다. 4명이 시작한 모어덴은



최이현 모어덴 대표가 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 앞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4년 뒤인 현재 20명으로 식구가 늘었다. 그중 2명은 새터민, 2명은 경력 단절 여성이다.

매출도 크게 늘고 있다. 2016년 9000만원, 2017년 3억 원, 지난해에는 10억 원을 달성했다. 올해 목표는 40억 원이다. 지난해 매출이 크게 된 데에는 JDC제주면세점 입점 영향이 컸다. 서울 마포구 합정점, 고양 스타필드점에 이은 세 번째 컨티뉴 매장은 현재 월 매출 1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최 대표는 “입점 제안을 받을 때만 해도 부담감이 컸다”며 “만약에 우리가 잘 안 되면 그다음부터 사회적 기업이 입점하기 어려워질까 봐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월 매출 3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1억 원이 된 지금 부담감을 덜 수 있어서 기쁘다”며 “지난해 말에 JDC에 사회적 기업 한 곳이 더 입점했는데 모어덴이 문을 연 계기가 됐다

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BTS의 멤버 RM이 2016년 컨티뉴가 샘플 생산한 백팩을 2017년 겨울 유럽 여행 중 사용했고, 그 뒤로 최태원 회장, 김전 부총리가 쓰면서 모어덴의 매출은 10배 이상 뛰었다. 그는 “바라 오바마가 투미 백팩을 멘 뒤로 투미가 유명해진 것처럼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며 “박영선 중기부 장관께도 ‘어떻게 지원해줄까’에 앞서 브랜드를 아끼는 의미에서 구매해 써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북유럽 순방에 동행한 성과가 꽤 뚜렷했다고 평가했다. 스웨덴 볼보자동차 관계자도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자동차 기업으로서 모어덴은 더없이 반가운 파트너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와 스웨덴 모두 폐차 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있는데 모어덴이 대신 재활용을 해줄 수

있어 자동차 회사들의 관심이 많다”고 강조했다.

유럽 진출의 전망도 더 밝아졌다.

그는 “스웨덴 인구는 1000만 명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H&M, 아크네 등을 배출한 유럽 패션 산업의 허브이자 유럽 시장을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 박 장관, 스웨덴 국왕 등에게 모어덴을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유럽에 진출할 때 이렇게 정상 간 만남에 동행했다는 사실이 유럽 바이어들에게 신뢰도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바이어들이 스타트업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때 ‘정부에서 데려간 기업’이라는 증표를 내밀 수 있다는 이야기다.

원래 올 초에 미국 매장을 내려고 했던 모어덴은 미국 대신 독일 베를린과 스웨덴 스톡홀름에 매장을 내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5일부터 울릉도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해 4개월간 운영한다. 모어덴은 폐기물협회와 공동으로 울릉도를 포함한 도서 지역 폐기물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울릉도 최초 패션 팝업스토어일 것”이라며 “돈이 안 된다고 해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또 다른 목표는 파주에 오픈 팩토리를 여는 것이다. 현재 모어덴의 물류 창고와 공장은 다섯 군데로 나뉘어 있다. 이를 하나로 모으고 오픈 팩토리로 만들어 방문객 누구나 세척에서부터 제조 과정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남해 EEZ 채취 재개되지만… 끝모를 ‘바닷모래 갈등’

골재업체 “당초 계획 4분의 1 수준… 생색내기에 불과” 반발
인천해수청, 1년 넘게 행정절차 미뤄… 전북지역 民民 갈등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어민들과 골재업체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천 옹진군 해역은 물론 전북지역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일원의 바닷모래 채취에서 민민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남해 EEZ의 경우 일부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했으나 골재업체는 정부 공공 사업을 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7일 한국골재협회에 따르면 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15개 업체와 경인레미콘 협동조합 등 13개 관련 단체 회원 300여 명이 최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5월 말부터 인천해수청 앞에서 해사 채취 허가를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고, 민주당 중앙당사 앞과 해양수산부 앞에서도 상경 시위를 벌여

왔다. 이들은 ‘골재수급안정화대책’에 따라 2023년까지 인천 옹진군 해역 1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지만 인천해수청이 어민 반대를 이유로 1년 넘게 채취 활동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해사 채취를 위해 ‘해역이용평가서’를 4차례 이상 보완했지만 ‘반대’가 뻔한 어민 동의를 전제로 해수부가 최종 채취 허가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해사 채취 업체 15곳 모두 폐업 위기에 몰렸고, 90% 이상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전북 앞바다 서해 EEZ 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어민과 지자체, 정치권의 모래 채취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전북 군산 시의회는 서해 EEZ 모래 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



인천 바다골재 업체가 지난달 30일 인천해수청 앞에서 해사 채취 허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원들은 “지난 11년간 어정도 인근 EEZ에서 바닷모래를 6425만㎡ 채취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또다시 5년간 바닷모래 채취를 추진하고 있다”며 “여측 자원을 말살시키는 정부의 서해 EEZ 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는 결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회, 전북도에 보냈다.

남해 EEZ의 경우 바닷모래 채취가 끊긴 지 2년 6개월 만에 재개됐다. 반면 골재업체는 채취 허가량이 적은 데다 부산항 신항 부두 등 공공사업용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높아 냉랭한 반응이다. 이곳은 2017년 1월 수협 등 어민 반발로 모래 채취가 중단됐다. 이번에 확정된 총 채취 허가량은 111만 7500㎡로, 국토교통부가 2019년도 골재수급 계획을 통해 남해 EEZ 채취량으로 정한 400만㎡의 4분의 1 수준이다.

고성일 한국골재협회 회장은 “서해와 남해 등 전국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두고 골재업체와 어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해수부가 어민과 업체의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LG유플러스, 공덕역에 세계 첫 5G 갤러리 연다

예술작품 AR 관람… 내달 공개

LG유플러스가 세계 최초로 5G와 문화예술을 결합한 ‘U+5G 갤러리’를 선보인다.

LG유플러스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지하철 6호선 공덕역 문화예술철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과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연간 1300만 명이 이용하는 6호선 공덕역 역사 공간을 시민들이 지하철을 오가며 다채로운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예술철도’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5G 기술을 활용해 작품을 증강현실(AR)로 관람하는 ‘U+5G 갤러리’를 8월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고객이 스크린더에 설치된 미술 작품을 LG유플러스의 5G 증강현실 서비스 앱인 ‘U+AR’로 보면, 정지된 그림에서 움직이는 작품을 크게 확대하거나 자유롭게 돌려보면서 감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시민들이 지하철이라는 공공 공간에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5G기술이 갤러리를 관람하는 데 또 다른 감동을 주길 기대한다”며 “서울교통공사와 적극 협력해 문화예술 철도의 좋은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KT, 300억 규모 ‘울산페이’ 운영 사업자로 선정

KT는 울산광역시 지역화폐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운영대행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8월부터 연간 300억 원 규모로 발행되는 울산페이는 울산시가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순순환을 바탕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해왔다.

KT는 블록체인의 지역 화폐 플랫폼 ‘착한페이’를 울산시에 제안해 울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KT 지역화폐 플랫폼 착한페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지류형 지역 화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울산 지역 내에서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울산페이는 모바일 앱 기반의 QR 결제 시스템과 카드 결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금액을 은행계좌로 실시간 현금 환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수료도 없다.

앞으로 KT와 울산시는 울산지역 중소기업 및 시민을 대상으로 울산사랑상품

권 설명회를 진행하고 가맹점을 모집할 예정이다.

서영일 KT 블록체인 비즈니스 센터장(사무)은 “수백억 원의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지역화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며 “KT는 블록체인 기반의 착한페이를 통해 울산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의 주요 사업인 지역 화폐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TMON

불꽃 튀는 소셜커머스 ‘2위 싸움’ 위메프

소셜커머스 2위 자리를 놓고 티몬과 위메프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쿠팡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기준 2위를 차지한 티몬이 ‘타임마케팅’을 강화하자 위메프는 ‘초저가’ 전략으로 맞불을 냈다.

롯데와 신세계 등 전통 오프라인 강자가 롯데온(ON)과 SSG닷컴으로 온라인 사업을 확대하고, 소프트뱅크의 지원을 등에 업은 쿠팡이 올해 첫 매출 10조 신화에 시동을 거는 등 이커머스 전반에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2~3위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2위 수성과 탈환에 나서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최근 최저가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이달 초 100~200원 초저가 상품만 모아 파는 특가샵을 정식 론칭한 데 이어 4일에는 중국나라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특가 제품 등 전략상품을 교차해서 판매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최저가보상제’를 전체 상품과 채널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식품과 생활·유아동 등 생활필수품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한 지 한 달여 만에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최저가를 선언한 것이다.

소셜커머스 라이벌인 티몬이 ‘타임 커머스’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위메프의 ‘초저가’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타임 마케팅은 티몬이 승부수를 던지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티몬은 매주 월요일 시간별 특가 상품을 판매하는 ‘티몬데이’와 매주 금요일 전 상품을 무료로 배송하는 ‘무료배송

티몬, 작년 매출 2위 오르며 리퍼데이 등 타임마케팅 강화
위메프는 최저가보상제 확대 이어 특가샵 등 초저가 전략
2~3위 기업, 유통 공룡·쿠팡 사업 확대 견제 ‘선택과 집중’



티몬은 매주 월요일 ‘티몬데이’(왼쪽)를 통해 시간별 특가상품을 판매하는 등 타임커머스 대표 주자로 거듭나고 있다. 위메프는 2일 초저가 상품으로만 구성된 ‘100원 특가샵’을 선보였다.

사진제공 티몬·위메프



데이’, 매월 1일 할인 행사를 펼치는 ‘퍼스트데이’, 매월 24일 리퍼 상품을 할인가에 판매하는 ‘리퍼데이’ 등을 운영하며 타임커머스의 대표 주자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타임마케팅의 대부분으로 불리는 이진원 대표를 영입한 것도 이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티몬은 현재 ‘불’ 단위 행사도 구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셜커머스 2위에 위메프보다는 티몬이 근접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티몬이 ‘타임커머스’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면 위메프의 초저가 전략은 오

프라인과 온라인 대부분의 업체가 시도하고 있어 차별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초저가는 판매단가가 낮은 데다, 수량 확보에도 한계가 있어 매출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초저가 상품을 미끼로 다른 상품 구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최근 스마트 소비자가 늘면서 낚시 상품만 구입하는 패턴이 늘고 있는 점도 위메프로서는 부담이다.

사실상 소셜커머스 2위를 결정하는 것은 각 회사가 직매입 사업을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

난해 티몬은 매출로 전년 대비 40% 늘어난 4972억 원을 기록해 소셜커머스 만년 3위에서 2위 자리를 꿰찼다. 위메프는 4295억 원의 매출로 직전 연도에 비해 9.3% 줄며 주춤했다. 쿠팡은 4조4227억 원을 기록했다.

티몬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직매입 구조의 ‘슈퍼마트’ 사업 확대에 있다. 직매입 방식은 실제 판매되는 금액이 매출로 계상돼 수수료 수익이 매출로 잡히는 중개방식에 비해 매출 상승률이 높다. 반대로 위메프는 직매입 매출 비중을 30%까지 낮추고, 중개방식을 직전 해보다 40%가량 늘리면서 매출 성장 대신 재무구조 개선을 택했다. 직매입에 따른 물류 및 배송비 부담을 낮추며 적자폭을 줄이는 효과를 봤다.

하지만 을 들어서는 양 사 모두 직매입을 축소하는 분위기다. 티몬은 최근 직매입 서비스인 ‘슈퍼예약배송’을 중단하고, ‘산직직송관’, ‘대용량관’ 등 위탁 판매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메프는 이미 지난해 신선식품 배달 서비스인 ‘신선생’을 중단했고, 직매입 서비스인 ‘원더배송’을 축소했다. 대신 중개 방식의 판매수수료 매출을 늘려 수익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 등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면서 “각 회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기만의 색깔 입히기에 몰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한섬 × 오투기 협업 티셔츠. 사진제공 한섬

한섬, 오투기 손잡고 한정판 의류 9종 출시

시스템웜, 밀레니얼 세대 공략
짜장·카레·케첩 디자인 소재 활용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이 식품기업 오투기와 손잡고 이색 협업 의류를 선보였다.

한섬의 남성 캐주얼 브랜드 시스템웜은 오투기 CI(기업 이미지)와 영문명을 넣은 ‘시스템웜×오투기’ 한정판 의류 9종을 온라인몰 ‘더한섬닷컴’에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한섬이 유명 아티스트가 아닌 일반 기업과 협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시도다.

이번 협업 제품은 티셔츠 7종과 셔츠 2종으로 오투기 CI와 영문명은 물론 ‘3분 짜장’·‘3분 카레’·토마토 케첩 등 오투기 대표 식품을 디자인 소재로 활용한 ‘반소매 셔츠’, ‘긴소매 셔츠’를 내놴다. 밀레니얼 세대 공략을 위해 기존 시스템웜의 티셔츠 가격보다 60~70% 낮췄다.

김은정 한섬 트렌디사업부장(상무)은 “고가의 컨템포러리(현대적 감각의 준명품) 브랜드가 대중적인 고객을 타깃으로 한 식품업체와 협업하는 것은 자칫 기존 마니아 고객층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재미와 개성 등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 고객층을 늘리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젊고 자유로운 이미지를 내세우는 시스템웜과 젊은 층으로부터 ‘갯뚜기(God+오투기)’란 별칭을 얻고 있는 오투기의 만남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신선함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투기에서는 이번 협업을 통해 기존 레토르트(간편식) 제품(3분 짜장, 3분 카레)을 차별화한 ‘3분 짜장웜’과 ‘3분 카레웜’을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3분 짜장웜에는 트러플(송로버섯) 향을 첨가했고, 카레웜에는 크림을 각각 넣어 기존 제품 가격보다 1.5배 비싼 프리미엄 제품으로 판매한다.

박미선 기자 only@

유통가 ‘이색 보양식’ 열전

초복(12일)이 가까워지면서 유통업체가 ‘초복 특수’ 잡기에 분주하다. 삼계탕으로 대표되던 보양식에서 벗어나 색다른 보양식을 출시하고 구하기 어려운 재료로 구성된 특별한 보양식을 선보이는 등 소비자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초복을 맞아 특허 출원한 로스트 치킨인 ‘황제치킨’을 호텔 최초로 선보였다. 황제치킨은 친환경 무항생제 닭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초정리 천연 탄산수 염지 기법으로 특허 출원까지 받았다. 해당 염지 기법은 염기성인 소금에 산성인 초정리 천연 탄산수를 배합해 찐맛을 중화시키고, 탄산 내 기포가 삼투압 작용을 촉진해 고기의 육질을 쫄깃한 식감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호텔 측은 “황제치킨은 세련된 이색 보양 메뉴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며 “초복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제치킨 세트는 파르나스 호텔 1층 그랜드텔리에서 10일부터 예약 판매되고 초복인 12일부터 8월 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비스엠베서더서울명동은 스페인식 야채수프인 ‘가스파초(gazpacho)’, 쌀 요리인 ‘파에야(paella)’, 프랑스식 소고기 스테인 ‘포토피(pot-au-feu)’ 등 생소하지만 각 나라에서 예로

황제치킨·자연산 민어회 등
초복 앞두고 보양식 차별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가 특허 출원한 로스트 치킨 ‘황제치킨’.

부터 전해 내려온 다양한 보양 음식을 8월 31일까지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자연산 농어회에 이어 24일까지 빅마켓 5개점에서 자연산 민어회를 선보인다. 자연산 농어회와 민어회는 횡집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고급 보양식이다. 롯데마

트 측은 “색다른 보양식을 선보이기 위해 자연산 농어회, 민어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색 보양식을 다양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HMR(가정간편식)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구매 후바로 먹을 수 있는 조리된 보양식도 인기가. SSG닷컴에서는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한 달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삼계탕, 갈비탕, 장어 요리, 전복죽 등 보양식 HMR 매출이 전월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늘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간편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도 보양식으로 꾸며졌다. 이마트24는 초복에 맞춰 9일 민물장어덮밥을 출시한다. 민물장어덮밥은 복날 많이 찾는 대표적인 보양식인 민물장어를 데리야끼 소스를 발라 구운 후 한 마리 통째로 담아내는 프리미엄 상품이다. CU도 여름철 기력 보충에 도움을 주는 소불고기, 훈제오리 등 스테미너 음식들로 구성된 프리미엄 도시락 ‘기력충전정식(4700원)’을 출시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아삭아삭 햅사와 맛보세요

7일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가장 빨리 먹는 햅사와 ‘쌈머킹’ 품종을 소개하고 있다. ‘쌈머킹(1.3kg/봉, 7980원)’은 햅사와 중 가장 일찍 맛볼 수 있는 사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산 품종이다. 빛깔은 초록빛이며 아삭거리는 식감과 새콤한 맛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햅사과는 7월 하순에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보름 이상 이른 7월 초부터 햅사과를 맛볼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 이마트

CJ제일제당, 슈완스와 美 PGA대회서 ‘비비고’ 홍보

왕교자·미니완탕 완판 행진

CJ제일제당이 지난해 인수한 슈완스와 함께 미국 PGA 대회에서 한국 식문화를 알렸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한식 브랜드 비비고를 앞세워 미국 PGA 대회 ‘더 3M 오픈(The 3M Open)’의 공식 후원 브랜드로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미네소타주 블레인의 TPC 트윈시티에서 열렸다.

대회 기간 CJ제일제당은 경기장에서 비비고 컨세션(Concession) 부스인 ‘테이스트 비비고’와 ‘비비고 VIP 라운지’를 운영했다. 이번에 선보인 메뉴들은 전문 셰프로 구성된 CJ제일제당 푸드시너지팀과 미국 슈완스 셰프들이 협업해 만들었다.



미국 PGA대회에서 켈러리들이 비비고 활용 메뉴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 CJ제일제당

테이스트 비비고에서는 ‘비비고 만두’, ‘비비곤’, ‘닭강정’, ‘햅도그’ 등 경기를 보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를 선보였다. 비비고 VIP 라운지에서는 정찬으로 조식, 중식, 디저트 등을 제공했다. 식사 메뉴는 비비고 제품을 활용한 갈비구이

와 잡채, 샌드위치, 김밥, 육개장, 비비고죽 등으로 구성됐다.

켈러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비비고 만두였다. 현지 입맛에 맞게 매운맛을 줄이고 단맛을 더한 고추장 소스를 찍어 먹는 왕교자와 미니완탕은 매일 오전 일찌감치 완판됐다.

CJ제일제당은 올해 2월 미국 PGA 대회 ‘제네시스 오픈’을 시작으로 3월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5월 ‘AT&T 바이런 넬슨’에 공식 후원사로 참가했다.

손은경 CJ제일제당 식품마케팅본부장은 “CJ제일제당은 미국 식문화에 적합한 메뉴 개발에 힘쓰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슈완스 셰프들과 함께 협업해 현장에서 더욱 긍정적인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NH투자증권, 中 공소그룹과 합작 증권사 설립 추진

中 정부 금융시장 개방 움직임
국내 증권사 현지 법인 6곳
자문사로 등록돼 대부분 순손실
업계, 中 진출 돌파구 마련 기대

NH투자증권이 중국 현지기업과 합작
증권사 설립을 추진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농협금
융지주 차원에서 중국 공소집단유한공사
(공소그룹)와 합작 증권사 출범을 검토하
고 있다. 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공소그
룹과 MOU 체결 이후 가장 먼저 인터넷

소액대출 은행 진출을 모색했으나 무산됐
다”면서 “이후 증권은 물론 은행과 손해보
험 등 금융회사 진출을 다각도로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소그룹은 공소합작총사(중화전
국공소합작총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농업 관련 대형 유통그룹이다. 앞서 농협
금융지주는 2016년 공소그룹과 금융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으
며 이후 오랜 기간 합자금융회사 설립 금
융 관련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양
측의 합작 증권사 설립 추진은 중국 정부
가 외국인의 금융 투자 한도 폐지 시점을
2020년으로 원래 계획보다 1년 앞당기겠
다며 시장 개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

과 맞닿아 있다. 농협지주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시장개방 방침을 밝힌 데다, 공소
그룹이 국내 농협 금융처럼 협동조합의 금
융 부문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관심이 커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와 검토를 거쳐 NH투자증권
이 합작사 형태로 중국에 진출하면 사실상
업계 첫 중국 증권업 진출이다. 현재 대형
사를 중심으로 총 6개 증권사가 2010~
2011년부터 현지법인을 운영 중이지만 사
실상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증권사들의 중국 현지 법인 6곳 모
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 인
가를 받은 금융투자 회사가 아니라, 상무

국에 일반자문 회사로 등록된 상황으로 투
자은행(IB) 등 증권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국 현지법인 대
부분 증권·선물 관련 자문을 제외한 국내
기업의 현지 인수·합병(M&A)이나 기업
공개(IPO) 예정기업 소개 등 자문업만 수
행하고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인도네시
아나 베트남 법인과 달리 수익을 내는 법
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
라고 말했다.

이에 국내 증권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이
렇다 할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에서 NH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돌파구를 찾
을 수 있을지 관심이 크다. 단순 자문업에서

벗어나 증권업에 본격 진출한다면 이전과
달리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
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증권사들의 현지법인은 총 130만 달러
(약 1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회사별로
살펴 보면 NH투자증권은 8억5900만 원 순
손실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한국투자증권
도 6억5000만 원 순손실을 냈다. 미래에셋
대우는 전년(-5900만 원) 대비 간신히 흑
자전환(2억9700만 원)을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국의 규제 문턱
이 낮아질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NH
투자증권의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다른
증권사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5G 시대 ‘아이원넷’ 고속 성장 기대”

CEO 인터뷰

정동섭 휴네시온 대표

PC자료·서버스트림 안전 전송
망연계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
작년 출시 ‘캠페스’ 효자상품으로



밝혔다.

이어 “캠페스는 영
상 보안시장 내 개인
영상 정보에 관한 법
적 이슈, 스마트시티
활성화 등으로 성장
세가 뚜렷하다”며

“당사의 주력 제품인 아이원넷의 고객 인
지도를 기반으로 영업망을 갖춰 시장
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말했다.

휴네시온의 주력 사업인 망연계(망
간 자료전송) 솔루션의 시장 점유율은
2018년까지 4년 연속 1위(조달 판매
기준 42%)를 기록했다. 주요 성공 요
인은 기술적인 완성도와 고객 편의 우
선 정책이다.

시장 점유율 1위를 가능케 한 주력 제
품 아이원넷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망에
있는 사용자 PC 자료 및 서버 스트림을
안전하게 전송해 주는 보안 솔루션이
다. 주요 고객은 국가 공공기관을 비롯
해 금융, 방위산업체다. 관련 분야의 망
분리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관련 시
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신제품 아이원넷 디디는 국방, 전력,
항공, 철도, 수자원 등 기반시설에서 페

쇄망에 위치한 제어시스템의 데이터 활
용을 위해 보안성이 강화된 연계 기능
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에 적
용되고 있으며, 시장 성장 초입 단계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지난해 초 출시된 캠페스는 손익 분
기점을 넘어서면서 또 다른 효자 상품
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애초 손익 분기점
돌파 시점을 3년으로 예상했지만 1년 6
개월여 만에 넘어섰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추가적인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내
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정 대표는 “올해 초 클라우드 보안서
비스(SecaaS) 개발 사업에 선정돼 클
라우드 기반 망간 자료전송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기반 망연
계(망간 자료전송) 솔루션은 올해 말
상용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 네트워크 트래픽 수집·분
석 솔루션 아이스펙터(i-Spector)를
출시했다”며 “하반기 차세대 망연계 보
안 솔루션도 준비하고 있어, 매년 지속
성장 가능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종민 기자 kjm@

휴맥스, 신용등급 A3로… 또 하락

셋톱박스 시장 수요 감소 영향

매출 줄며 작년 391억 적자 전환
순차입금 1918억으로 대폭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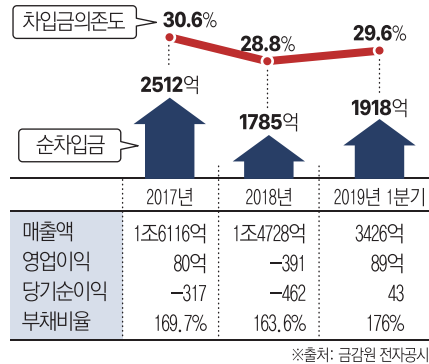
셋톱박스 제조업체 휴맥스의 신용도가
또 다시 하향 조정됐다. 셋톱박스 시장의
수요 감소 영향으로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재무안정성 지표가 악화된 것이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최근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휴맥스의 재무안정성 저하 등을 반영해 기
업어음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신평사들이 휴맥스의 신용
등급을 낮춘 것은 2017년 12월 이후 약 1
년 반 만이다.

휴맥스의 실적은 2017년부터 눈에 띄는
하향세를 보였다. 2016년 200억 원대 영업
이익을 거뒀지만 2017년 80억 원으로 급격
히 축소됐고 지난해에는 391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 역시 2017년
0.5%에서 지난해(-2.7%)에는 마이너스

휴맥스 재무지표

(단위 : 원)



로 돌아섰다. 원재료 구매 부담과 함께 저
수익 사업 철수와 인력 구조조정 등자구 노
력에도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국내는 물론 미주, 유럽, 일
본, 중동 등 매출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
다. 올 1분기에도 지역별 매출 톱 시장인
미주는 매출액(2885억 원→1372억 원)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났으며, 유럽도 585억 원
에서 530억 원으로 50억 원가량이 줄었다.

김승범 한기평 선임연구원은 “영업실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셋톱박스 시장은

전반적인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 축소와 신
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 감소로 사업기반이
악화됐다”며 “최근 2~3분기 발주도 미미한
현상이 지속돼 매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
다”고 분석했다.

실적 부진의 여파로 재무안정성 지표는
모두 악화됐다. 부채비율은 2017년
169.70%에서 올 1분기 176%로 늘어났
다. 순차입금도 2016년 170억 원에 불과
했지만 올 1분기 1918억 원까지 증가했
다. 차입금 의존도는 2016년 20.6%에서
올 1분기에는 29.6%를 기록했다.

신평사들은 휴맥스의 재무안정성이 단
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
다. 주력 시장에서 매출 확대가 어려워진
데다 2017년 이후 차량용 전장사업 등 성
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로 차입 부
담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또 전방업체인
방송사업자가 인수합병(M&A)을 통해
대형화로 협상력을 제고하고 있는 데 반해
휴맥스는 여전히 열위한 교섭력으로 전방
업체의 지속적인 평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주주가치 제고·자본금 규모 적정화

진로발효, 7년 만에 265억 유상감자

진로발효가 7년 만에 265억 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진행한다. 주주가치 제고는 물
론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로 기업가치를 높
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진로
발효는 감자비용 12%의 유상감자를 최근
결정했다. 줄어드는 주식 수는 90만2880
주로, 주당 2만9350원에 유상 소각된다.
이에 따라 자본금은 39억여 원에서 35억여
원으로, 발행 주식 수는 752만4000주에서
662만1120주로 각각 줄게 된다. 감자기준
일은 8월 26일이며 22일 유상감자를 안건
으로 다룰 주주총회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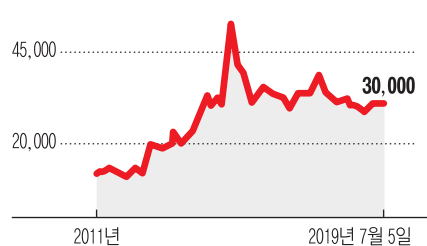
진로발효는 주정 제조업체로 1985년 진
로의 영등포공장에서 독립법인으로 설립
됐으며 1993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최대주주는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의 이
복형인 장봉용 전 진로발효 회장의 부인
서대선 이사(27.39%)를 비롯해 자녀 장
진혁 부회장(18.26%), 장진이 이사
(18.26%) 등이 65.59%를 갖고 있다.

2012년 처음으로 매출 800억 원(별도
기준) 고지를 넘긴 이래 작년 857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출 증가율이 극히 저조하
다. 시장 변동이 적은 주정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탓이다. 탄탄한 매출처를 바탕으로
진로발효는 매년 200억 원 안팎의 영업이
익과 150억~190억 원 전후의 순이익을 내
고 있다. 매년 쌓이는 현금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진로발효가 유상감자를 선택한 이유도
회사 내부의 넘쳐나는 현금 탓이 크다. 외
부에 현금이 유출되지 않고 쌓이다 보니

진로발효 주가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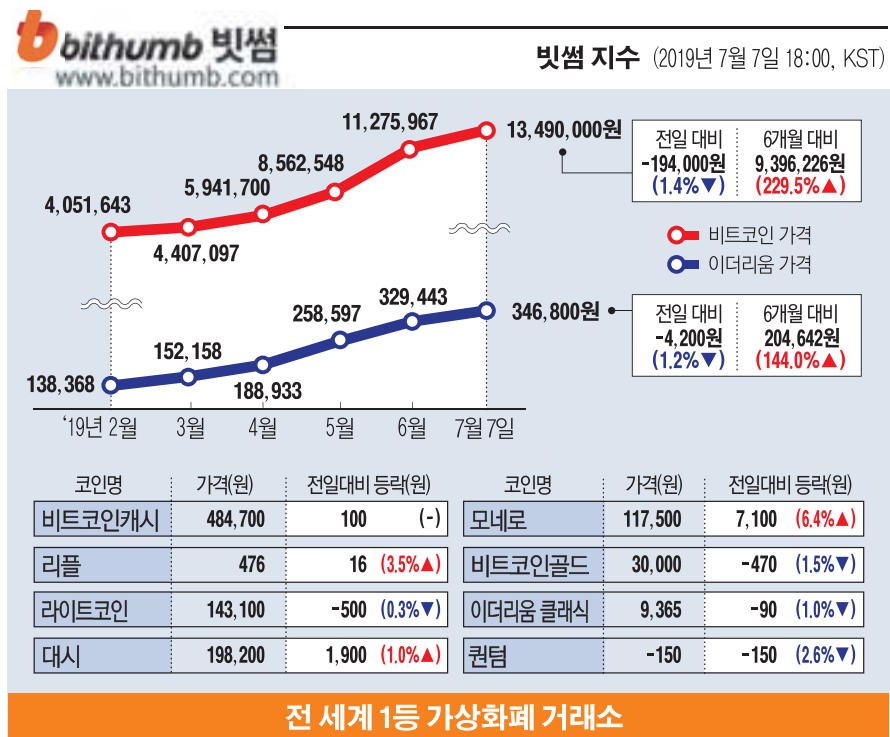


자기자본이익률(ROE)의 둔화가 불가피
하게 됐다. 앞서 감자비용 43%로 유상감
자를 했던 2012년을 전후로 ROE는 9.5%
에 불과했지만, 유상감자 이후 31.3%로
개선됐다. 여기에 주식 거래량이 저조해
장내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쉽지 않다
는 점도 유상감자를 택한 이유로 꼽힌다.

진로발효의 ROE 개선은 시장에 긍정적
인 시그널을 줬고 2013년 저도주 열풍 등
과 맞물려 주가 급등의 밑거름이 됐다. 감
자 당시 1만2000~1만3000원대였던 주가
는 꾸준히 올라 2015년에 5만 원대를 돌파
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과거의 상승분을 모
두 반납하고 3만 원대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해 진로발효의 ROE는
작년 말 기준 14.0%까지 낮아진 상태다.
꾸준한 수익으로 잉여금이 늘어 자본총계
가 2012년 유상감자 이전 수준인 1000억
원대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유상감자
가 진행되면 진로발효의 ROE는 19.1%로
5.1%포인트 올라간다. 진로발효가 다시
한 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지 이목이 쏠린
다.

조남호 기자 spd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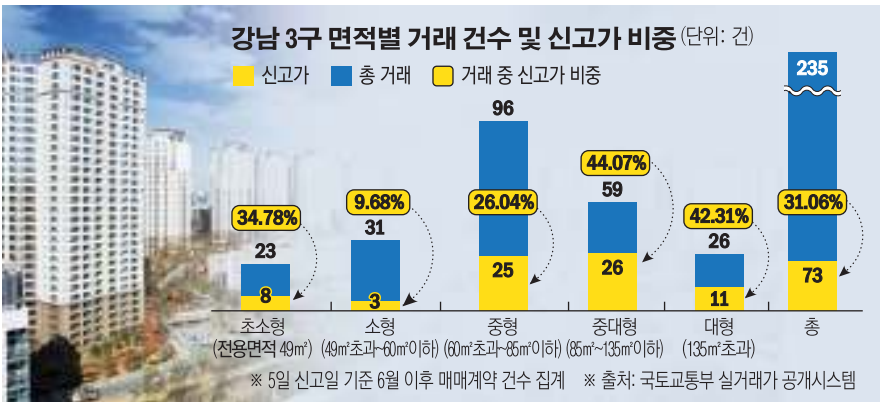


줄줄이 신고가... 강남 중대형아파트 ‘덩치값’ 하네

중소형과 가격 차이 좁혀진데다 희소성 높아져
고강도 규제 더해지며 ‘똥똥한 한 채’ 수요 몰려
강남3구, 6월 이후 신고가 거래 비중 44% 차지

서울 강남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넓은 주택형(대형·고가 아파트)이 ‘덩치값’을 하고 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강남권에서 중대형 면적의 아파트들이 잇달아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어서다. 강남 중대형 아파트 인기는 공급 불일치와 부동산 규제 여파에 따른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근 10여년간 중소형 면적 위주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면서 중대형 물량이 줄어 희소성이 높아진 데다 부동산 규제로 ‘똥똥한 한 채’를 찾는 수요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삼성 1

차 아파트 전용면적 113.5㎡(5층)가 이달 1일 전고점(14억 원, 2017년 3월)보다 6억 원이나 비싼 20억 원에 팔렸다. 비싼 가격에도 매수세가 따라붙으면서 매도 호가(팔려고 부르는 가격)도 강세다. 현재 이 아파트는 21억~22억 원을 호가하고 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현금 부자들은 강남에서 큰 평수 아파트를 살 때 마음에 들면 가격을 크게 따지지 않는다”며 “집주인들도 호가를 높게 불러놓고 ‘사려면 사라’는 식으로 여유롭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재건축 이주와 갈아타기 수요가 겹치면서 고가 신축 단지의 호가도 뛰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69㎡(8층)는 지난달 5일 33억 원에 거래됐는데, 2월 기록한 전고점인 31억5000만 원(24층)을 넘어섰다. 이 아파트 매도 호가는 최근 30억8000만~34억 원 선으로 치솟았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69㎡(16층)도 지난달 4일 38억 원에 거래돼 36억5000만 원(20층)에 팔린 지난해 9월 기록을 갈아치웠다.

반포동 D공인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중소형 아파트값이 뛰면서 중대형과의 가격 차가 좁혀진 데다 이주를 앞둔 반포주공 1·2·4지구 수요가 늘면서 인근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며 “매물이 부족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부터 입금하겠다는 대기수요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권의 경우 중대형 이상 면적의 신고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5일 기준으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신고된 지난달부터 이달 4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총 235건의 아파트가 매매됐는데, 이 중 신고가 거래된 건수만 73건으로 전체의 31.06%에 달했다. 특히 중대형(전용 85㎡ 초과~135㎡ 이하)과 대형 면적(전용 135㎡ 초과)의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 중대형은 59건 거래 중 신고가 거래가 26건으로 전체의 44.07%를, 대형은 26건 중 신고가가 11건으로 42.30%를 차지한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출산으로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흐름을 감안할 때 중대형 아파트 인기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강남권 중대형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강남·서초구 등 인기지역 중심으로 중대형 아파트값 강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서울 집값 0.3% 이상 오르면 추가 대책 시행” (주간 단위)

아파트값 8개월 만에 반등
국토부 “시장 동향 주시”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8개월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태세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같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져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3%를 넘어설 경우 정부는 뚜렷한 과열 징후로 인식하고 이 시점을 전후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재과열 판단 기준에 대해 “내부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변동률(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이 0.3%를 넘고 이 상태가 이어지면 과열 단계로 판단해 추가 대

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주간 상승률 0.3%는 1년(52주)으로 환산하면 15% 이상(15.6%) 오르는 것으로, 연간 이 정도 상승 폭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지난해 하순 한창 서울 집값이 치솟을 때 서울의 주간 매매가 상승률이 0.4%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은 겨우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아직 이 정도 상승률을 보이기까지는 2~3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 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만의 일이다. 그동안 ‘상승장은 아니다’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던 정부도 한국감정원

자료마저 상승세로 나오자 긴장하는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코 현재 추이를 가볍게 보지 않고, 진지하게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추가 대책은 기존 대책들을 보강하는 차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김 장관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직접 불만을 제기한 만큼,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추가 대책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세종·광주·대전〉 세·광·대 하반기도 ‘청약불패’?

상반기 1순위 마감률 100% 기록
울산·전북·충남은 0%로 편차 커

올 들어서도 지방 분양시장이 침체를 면치 못한 가운데 세종시와 광주·대전시 등은 상반기 분양시장에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단지들은 모두 1순위에서 청약 마감하는 기업을 토했다. 5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총 202개 단지(임대단지 제외)가 공급됐는데 이 중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한 곳은 107개 단지로 54.04%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4.79%와 비교하면 10.1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로는 세종·광주·대전이 모두 100% 마감률을 기록했다. 세종은 6개 단지, 광주는 9개 단지, 대전은 3개 단지가 공급됐고 모두 1순위 마감했다. 이 중 세종과 광주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1순위 마감률 100%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뜨거운 청약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종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모두 속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라는 점이 눈에 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신규 공

급 단지의 분양가가 경쟁력을 갖췄던 계인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지역 외에 4번째로 높은 1순위 청약 마감률을 기록한 곳은 서울이다. 총 25개 중 24곳이 1순위 마감되며 1순위 마감률이 96%에 달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1순위 마감률은 93.75%였다. 이어 대구가 23개 단지 중 19곳이 1순위에 모집 가구 수를 채우며 마감률이 82.61%를 나타냈다. 대구는 지난해 93.33%에서 82.61%로 다소 하락했다. 반면 전국 평균인 54.04%의 1순위 마감률을 넘는 시·도는 세종·광주·대전·서울·대구·전북 등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분양시장의 편차가 심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울산, 전남, 충북은 1순위에서 마감한 단지가 한 곳도 없어 0%를 기록했으며, 이 중 충북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1순위 마감률이 0%를 기록해 분양시장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정보사업본부장은 “세종·광주·대전과 서울 등 인기지역들의 경우 하반기에도 분양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인기지역의 분위기에 편승하기보다는 개별 단지의 입지 및 분양가 경쟁력 등을 꼼꼼하게 따져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금주의 분양캘린더

7월 둘째 주 전국에서 656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 안흥동 ‘이천롯데캐슬페라즈스카이’, 전남 순천시 조례동 ‘조례2차골드클래스시그니처’ 등이 청약 접수에 들어간

다. 이외에 파주운정, 화성동탄2 등에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당첨자 발표는 24곳에서 진행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그랑자이’, 경기 평택시 고덕면 ‘고덕하늘채시그니처’, 대구 서구 내당동 ‘e편한세상두류역’ 등이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14곳으로 경기

파주시 동패동 ‘파주운정신도시중흥S클래스’, 화성시 봉담읍 ‘봉담2지구중흥S클래스’, 대전 중구 중촌동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 등이다. 견본주택은 9개 사업장에서 개관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e편한세상백련산’, 세종시 금남면 ‘세종하늘채센트럴빌’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7/8 (월)	접수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경지Arium 1순위(당해지역)	7/11 (목)	접수	부산	해운대구	좌동	부산좌동창업지원(행복주택)1BL (~7/18)
		경기	용인시	신봉동	힐스테이트광교산(7BL) 1순위(기타지역)			광주	서구	쌍촌동	광주쌍촌(행복주택)101BL (~7/18)
		부산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슈빌DS 1순위(당해지역)			강원	춘천시	우두동	춘천우두지구EGthe1(B3,4) 1순위
		대구	수성구	황곡동	힐스테이트황곡센트럴 2순위			전북	군산시	내흥동	군산신역세권A2(행복주택) (~7/18)
7/9 (화)	접수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경지Arium 1순위(기타지역)	7/12 (금)	오픈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2-A5(행복주택) (~7/18)
		도봉구	방학동	성진뉴파크뷰 1순위(당해지역)	충북			충주시	호암동	충주호암A4(행복주택) (~7/18)	
	발표	경기	용인시	신봉동	힐스테이트광교산(7BL) 2순위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디오베이션
		부산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슈빌DS 1순위(기타지역)			경기	은평구	응암동	e편한세상백련산
7/10 (수)	접수	경기	파주시	법원읍	파주법원(행복주택)	7/11 (목)	접수	광주	광주시	장지동	태전지구경남아너스빌
		인천	남동구	서창동	인천서창2지구14BL(행복주택)			시흥시	목감동	목감역지음재파크뷰(L1)	
	발표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경지Arium 2순위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도봉구	방학동	성진뉴파크뷰 1순위(기타지역)	광주			북구	충흥동	제일봉정채센트럴파크	
7/11 (목)	접수	부산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슈빌DS 2순위	7/12 (금)	오픈	전남	순천시	서면	순천금호아울러더파크
		전남	순천시	조례동	조례2차골드클래스시그니처 1순위			충남	천안시	원성동	신천안한성필하우스에듀타운(1단지) 신천안한성필하우스에듀타운(2단지)
	발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그랑자이			세종	세종시	금남면	세종하늘채센트럴빌(4-2생활권P3)L3 세종하늘채센트럴빌(4-2생활권P3)M5
		서울	도봉구	방학동	성진뉴파크뷰 2순위			경기	이천시	안흥동	이천롯데캐슬페라즈스카이 2순위
7/11 (목)	접수		성남시	시흥동	판교제2테크노밸리창업지원주택A1(행복주택) (~7/18)	7/12 (금)	접수	강원	춘천시	우두동	춘천우두지구EGthe1(B3,4) 2순위
			안성시		안성아양A2-1(행복주택) (~7/18)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이천시	안흥동	이천롯데캐슬페라즈스카이 1순위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파주시	와동동	파주운정A39(행복주택) (~7/18)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11 (목)	접수		화성시	산척동	화성동탄2A77-1(행복주택) (~7/18)	7/12 (금)	오픈	※자료: 부동산114			
			인천	중구	중산동						



말레이시아 KLCC 포디움 투시도.

사진제공 삼성물산

삼성물산, 2070억 규모 말레이시아 복합몰 수주

KLCC 포디움 빌딩 프로젝트

삼성물산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도심에 복합몰을 짓는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말레이시아 아라 모덴사가 발주한 ‘KLCC 포디움 빌딩 프로젝트’의 낙찰통지서를 수령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단독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며 전체 공사금액은 1억7900만 달러(한화 약 2070억 원)로 총 공사기간은 40개월이다. 15일 착공하고 2022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쿠알라룸푸르 시티 센더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사업으로 쿠알라룸푸르 도심지역에 최고 지상 6층 높이의 복합몰을 짓는 것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긴급 수혈

서울시, 1.5% 금리로 자금 지원
오늘부터 피해 접수 창구 운영
중기육성자금 100억 우선 활용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접수 창구 운영 및 1.5% 저금리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일본 수출규제’ 상황 속에서 시가 가진 모든 수단과 행정력을 강구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피해접수 창구 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긴급자금 지원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직접 피해기업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을 골자로 한다. 직접 피해 기업이란 생산 차질 및 판매 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8일부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서울시 소재 기업의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기업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피해 상황을 접수받는다. 실태 확인 및 분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게 될 서울 소재 기업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1.5%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확한 지원금액 수요를 기업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우선 100억 원을 활용해 직접 피해기업들에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향후 지원 수요에 따라 지원 규모

의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혁신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작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벤처·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서울형 R&D 예산을 활용해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도 제공한다.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고지유예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도 최장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더위야 가라!

본격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상 ‘소서’인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제7회 신촌 물총축제에서 참가자들이 물총을 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폭염팬 에어컨 있는 ‘쉼터’로 오세요”

서울시, 취약층 특별보호 강화
무더위 쉼터 26곳·현장 순찰

서울시는 폭염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특별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효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무더위 쉼터에서 휴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1일 1회 방문 간호, 안부 확인 등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 여름 폭염 특별보호 대책도 서울시와 자치구, 노숙인 보호시설, 쪽방상담소, 소방서, 민간기업·단체 등이 긴밀하게 협조해 ‘폭염특보 발령’ 시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고 ‘현장순찰반, 방문간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 21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더위가 기승



119구급대원들이 폭염순찰 활동 중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시

을 부리는 7~8월에는 5곳을 추가해 총 26개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쉼터 내에는 에어컨과 샤워시설, TV 등이 설치돼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21개 쉼터는 24시간 개방해야간에 취침도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책기간 동안 노숙인과 쪽방주민에 대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폭염 시간대 노숙인 밀집지역과 쪽방촌 등을 순찰한다. 탈진증세 등 위험 대상자 발견 시 119신고, 무더위쉼터 이동, 음용수 제공 등 구호활동을 적극 실시한다.

설경진 기자 skj78@

대법 “몰취된 계약금도 법인세 원천징수해야”

강호AMC, 서울힐튼호텔 인수 추진
계약후 잔금 못내 계약금 590억 몰취
법인세 소송 사실상 패소 147억 내야

11년 전 서울힐튼호텔 인수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중소 부동산개발 업체 강호에이엠씨(AMC)가 140억 원이 넘는 법인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008년 당시 5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힐튼호텔의 인수계약을 체결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은 강호에이엠씨는 잔금을 치르지 못해 590억 원의 계약금을 날린 데 이어 상당한 법인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강호디오알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강호디오알은 강호에이엠씨의 계약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업체다.

재판부는 “재산권 매매계약에서 외국법인에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채무를 불이행해 몰취된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강호에이엠씨는 2008년 6월 24일 싱가포르 최대기업 홍콩그룹의 CDL호텔과 서울힐튼호텔 지분 100%를 4686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80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잔금일을 하루 앞둔 그해 9월 29일 매매대금 정산일을 11월 28일까지로 연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후 계약당사자가 된 강호디오알은 해당 날짜에도 잔금을 치르지 못했으며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계약 조건에 따라 590억 원을 몰취 당했다.

서초세무서는 2013년 2월 강호디오알이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은 계약 해지로 인해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에 해당한

다며 2008년도 법인세 147억5000만 원을 결정고지했다.

강호디오알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양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특약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됐다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잘못 기재돼 위법하고, 특약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됐을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잘못 기재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불복 신청에 지장을 받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법인세 본세 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재미

공감

행복

BR

AVO

My Life

정기구독 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썸썸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썸썸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썸썸 TV)

구독 문의 (02) 799-2680

명작 IP 활용 新시장 개척한 '게임 한류' 주역



⑮ 웹젠



'뮤 오리진' 앱스토어 출시 동시 매출 1위

글로벌 게임 기업 성장

최근 7080세대들이 즐기던 과거의 명작들이 모바일 게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이 게임들은 앱스토어에서 매출 순위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 명작 IP 활용의 선두주자이자, 앱스토어 매출 순위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IP '뮤'를 개발한 회사가 바로 '웹젠'이다.

웹젠은 2000년 4월 설립 이후 '뮤 온라인'을 선보였다. 당시 국내 첫 풀 3D MMORPG 장르의 게임이었던 '뮤 온라인'은 화려한 그래픽과 날개, 그리고 치열한 전투 시스템으로 게이머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정식 출시 1년 만인 2002년에는 국내 동시 접속자 7만 명을 기록했다. 뮤 온라인은 '제2회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에서 '종합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게임성을 인정받아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의 대표주

모바일 게임 IP 제휴 사업 원조

중 출시 3일 만에 매출 1위 달성

'뮤 오리진2' 사전예약 1000만명

자로 자리매김했다.

해외로 진출한 '뮤 온라인'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흥행을 거뒀다. 2003년 중국 동시 접속자 30만 명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게임 한류' 열풍을 이끌어내 국내외에서 온라인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다. 웹젠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기업으로 성장하며 2003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후 웹젠은 MMORPG 'R2' 개발사인 NHN게임스와 합병하고 2012년 김병관 의장, 김태영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현재의 경영체제를 확립했다. NHN게임스, 웹

젠에서 해외 사업 실무를 주도해 온 김태영 대표는 '뮤'가 가진 잠재력에 주목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주력하며 IP 제휴 사업 시장을 열었다. '뮤' IP를 이용해 개발하고 2014년 12월 중국에서 출시된 모바일 MMORPG '뮤 오리진'은 출시 3일 만에 중국 매출 1위, 첫달 매출 350억 원을 기록하며 국내외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IP 제휴 사업의 원조가 됐다. 2015년 5월에는 한국에 출시돼 모든 플랫폼에서 매출 순위 1위에 오르며 '뮤' IP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내 앱스토어 3사 동시 출시와 동시 1위 매출을 기록한 게임은 '뮤 오리진'이 현재까지 유일하다.

웹젠은 2018년 '뮤'의 IP를 활용해 제작한 두 번째 모바일 게임 '뮤 오리진2'를 한국과 중국에서 출시했다. 뮤 오리진2는 중국에서 사전 예약자 수 1000만 명을 기록하고, 국내에서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뮤' 시리즈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전략·골프·캐주얼 등 모바일 게임 영역 확대

장르 다변화

웹젠은 '뮤' 시리즈의 흥행 성공 이후 신작 게임 개발과 출시에 주력하고 있다. 게임 개발 영역도 '뮤 온라인', 'R2'로 대표되는 MMORPG뿐만 아니라 전략, 캐주얼, 수집형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며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15년에는 골프게임 '샷 온라인'의 개발사를 인수해 스포츠 게임 개발력도 확보한 상태다. 게임 개발 장르와 사업 영역을 넓혀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다양한 IP를 통해 매출 다변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웹젠은 모바일 MMORPG '마스터 탱커'를 비롯한 여러 게임들을 국내 시장

2015년 '샷온라인' 개발사 인수

캐릭터 수집·육성 턴제 전략게임

'나선영웅전' 하반기 출시 예정

에 출시하면서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마스터탱커'는 SD 캐릭터와 8등신의 영웅 캐릭터 중 이용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3D 모바일 MMORPG다. MMORPG 외에 다른 장르의 게임들은 선호도가 높은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우선 SNG(Social Network Game)를 바탕으로 게임의 스토리, 탐험 콘텐츠, 특색 있는 주민 캐릭터 등의 RPG 요소를 추

가한 모바일 게임 '큐브타운'은 현재 해외 시장에서 소프트 런칭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또 모바일 전략게임 '퍼스트 히어로'는 지난달 28일 글로벌 원빌드 방식으로 전 세계에 동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외에도 모바일 수집형 SRPG '나선영웅전: 헬릭스사가'는 한국과 대만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국내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나선영웅전은 속성과 무기 타입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SD 캐릭터를 수집·육성해 전략을 만들어 즐기는 턴제 전략 육성 게임이다. 웹젠은 '나선영웅전'을 포함해 직접 개발하고 있는 다수의 신작 게임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력을 집중하고 있다.

SLG·SNG·수집형 RPG 신작 프로젝트 추진

게임 개발 역량 강화

웹젠은 게이머들의 성향과 물리적 거리 등을 종합해 장르별로 게이머를 나누고 각각의 게임들을 준비하며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다.

웹젠은 웹젠레드코어 등 장르별 개발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개발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웹젠의 개발 자회사인 '웹젠레드코어'는 웹젠의 스테디셀링 게임 'R2'의 주요 개발진 10여 명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게임 개발을 위한 개발진의 독립된 의

웹젠 'R2' 개발진 10명 주축

개발 전문 '웹젠레드코어' 설립

중소 개발사 인수·투자도 확대

사 결정과 개발 환경을 보장해 개발 효율과 게임성을 높이고, 퍼블리싱 등 사업 부문은 개발 완료 단계에서 본사가 주도하는 형태다. '웹젠레드코어'의 신작은 내년 국내 시장에 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 '뮤 오리진' 이후 모바일 MMORPG

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대표 게임 개발을 목표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웹젠은 국내외 협력사를 늘려 꾸준한 게임 퍼블리싱 라인업을 보완하고, 중소 개발사 인수 및 투자 활동에 주력하면서 SLG, SNG, 수집형 RPG 등의 신작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영 웹젠 대표는 "빠르게 변하는 게임사업 환경과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및 게임 장르 다변화에 대비한 전략에 맞춰 개발과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준 기자 tatiato@

웹젠 연혁

2000	2006	2008	2014	2016	2018~2019
2000년 4월 주식회사 웹젠 설립	2006년 11월 'Soul of the Ultimate Nation' 상용화 서비스	2008년 4월 'R2' 중국 서비스	2014년 6월 뮤 IP 웹게임 '대천사지검' 중국 서비스	2016년 7월 모바일게임 '샷 온라인M' 국내 서비스	2018년 1월 뮤 IP 모바일게임 '기적MU: 각성' 중국 서비스
2001년 11월 '뮤 온라인' 국내 상용화 서비스	2007년 4월 'Soul of the Ultimate Nation' 대만 상용화 서비스	2009년 4월 'R2' 일본 서비스	9월 뮤 IP 웹게임 '대천사지검' 대만/홍콩/마카오 서비스	2017년 3월 온라인게임 '뮤 레전드' 국내 서비스	6월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2' 국내 서비스
2002년 11월 '뮤 온라인' 대만 상용화 서비스	5월 'Soul of the Ultimate Nation' 중국 상용화 서비스	9월 'C9' 상용화 서비스	12월 뮤 IP 모바일게임 '천만기적' 중국 서비스	9월 뮤 IP HTML5게임 '대천사지검H5' 중국 서비스	10월 뮤 IP HTML5게임 '뮤 온라인H5' 국내 서비스
2004년 2월 '뮤 온라인' 일본 상용화 서비스	9월 '아크로드' 일본 서비스	2011년 7월 'C9' 일본 상용화 서비스	2015년 4월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 국내 서비스	12월 뮤 IP 모바일게임 '기적MU: 최강자' 중국 서비스	2019년 3월 모바일게임 '마스터탱커' 국내 서비스
2005년 1월 '뮤 온라인' 필리핀 상용화 서비스	11월 'R2' 대만 서비스			12월 웹게임 '뮤 템페스트' 국내 서비스	6월 모바일게임 '퍼스트 히어로' 글로벌 서비스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100_{yd}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205g~ 44%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

최적화 기술 적용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 - 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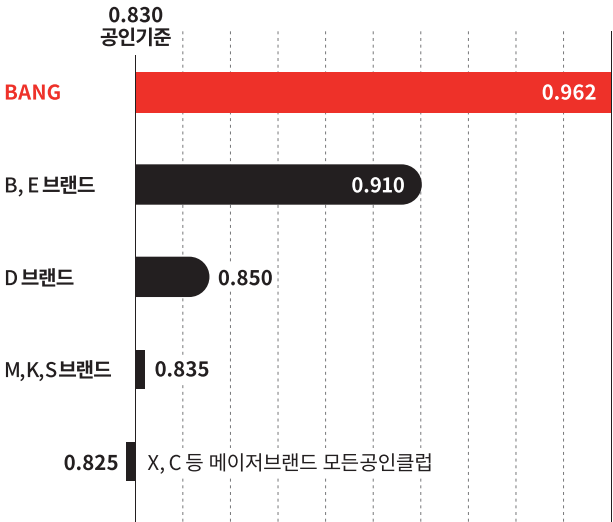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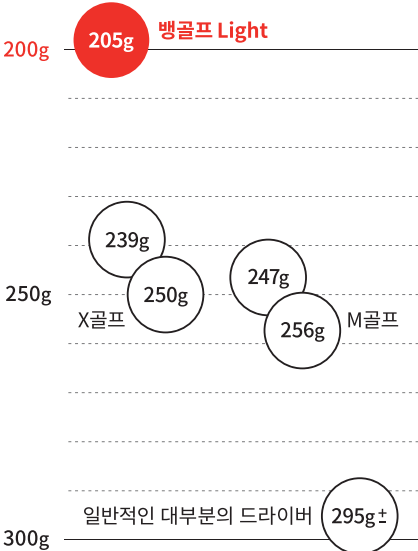
VVIP 고객님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고반발 기술 격차



경량화 기술 격차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확실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무게(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드 무게 조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게 산이더군요”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 ‘명산 100’ 완좌한 최혜련 씨

승진 압박에 시작한 등산, 100대 명산 거쳐 히말라야까지 올해말 명예퇴직… ‘섬&산 100’ 프로젝트 함께 도전할 것

입시, 취업, 입사 그리고 승진까지. 삶을 짓누르는 치열한 경쟁이 끝나지 않자 그는 ‘산’을 찾았다. 승진에 대한 압박을 잊기 위해 찾은 산. 춘천 지역 농협에 근무하는 최혜련(58·사진) 씨는 산에 오르며 마음속 울분을 털어내고 위로받았다. 그렇게 산에 오르다 보니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Blackyak Alpine Club, BAC) ‘명산 100’ 프로젝트에 도전한 지 570여 일 만에 100좌를 완주했다. 최 씨는 “승진에 밀려 스스로 다스리기 힘들 때 우연히 산을 찾았다”며 “처음엔 속마음을 털어놓고 열을 내며 산에 올랐는데 중간쯤 오르니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게 좋아서 반복하다 100대 명산을 완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은 산행에 대한 지식과 활동을 공유하는 블랙야크의 앱 기반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이다. 올해 5월 중순 기준으로 11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대표 프로그램인 ‘명산 100’의 완주자만 3500여 명에 이른다.

최 씨에게 산은 위로뿐 아니라 도전의 용기도 심어줬다. ‘히말라야’는 특별한 사람들만 오르는 곳이라 여겼던 그였지만 100좌 완주를 끝내고 지난해 히말라야 등반에 도전했다. 블랙야크는 매년 ‘명산 100’ 도전자와 완주자, 우수 도전 클럽을 대상으로 히말라야 등반 도전자를 추천한다. 최 씨는 40명가량 되는 당첨자 명단에 오르지 못했지만, 자비를 들여서라도 히말라야에 오르고 싶은 마음에 블랙야크 익스



트립팀에 연락해 당첨된 도전자들과 함께 할 기회를 얻었다. 최 씨는 “히말라야는 산을 잘 타는 사람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히말라야 등반을 통해 삶에서 잠시나마 완전히 일탈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히말라야는 오롯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특별한 곳이었다”고 돌아봤다.

올해 말 명예퇴직을 앞둔 최 씨는 퇴직 후에도 산과 함께할 계획이다. 그는 “내가 잘하는 게 뭐냐, 퇴직 후에 뭐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이것저것 배워보기도 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됐다”며 “그런데 등산은 오기로 할 수 있다. 뛰어나진 않아도 중간 정도만 해도 끝까지 가면 그게 의미 있는 거고, 완주가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퇴직한 이후에는 섬 속에 있는 산에 오르고 싶다. 마침 블랙야크의 ‘섬&산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도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블랙야크는 5월 최 씨의 히말라야 등반 도전기뿐 아니라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 멘토인 김미군 대장, 권용택 화가 등의 인터뷰를 담은 책 ‘명산 100과 사람들 : 함께 오르다’를 펴냈다. 박미선 기자 only@

베이조스 부부 이제 ‘남남’ 아마존 1970만주 매켄지에게 45조원…세계 부자명단 22위



온라인 유통공룡 아마존의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이조스와 전 부인 매켄지가 25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 판사는 전날 두 사람의 공식 이혼 문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아마존의 1970만 주가 매켄지에게 넘어갔다. 이는 아마존 전체 주식의 4%로 시가 383억 달러(약 45조 원)에 달한다.

매켄지는 베이조스와의 이혼으로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500대 부자 명단에서 22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베이조스는 전 부인에게 자택의 주식을 넘기고도 아마존의 지분 12%(약 1148억 달러)를 보유해 세계 최고 부호 자리를 유지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석탄왕’ 클라인 헬기 사고로 숨져 트럼프 “그는 위대한 사업가” 추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불의의 사고로 숨진 ‘석탄왕’ 크리스 클라인(60·사진)에게 추모의 뜻을 표했다.



미국 최대 석탄업체 중 한 곳인 포어사이트에너지를 설립한 억만장자인 클라인은 4일 바하마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졌다. 바하마 경찰에 따르면 바하마를 떠나 플로리다주로 향하던 헬기가 바하마 그랜드 케이제도 인근 해수면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클라인과 그의 딸(22)을 포함한 여성 4명과 남성 2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

사고 소식 이후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 “클라인은 위대한 사업가이자 에너지 전문가였다”며 “또 공화당의 대단한 기부자였다”고 추모했다.

클라인은 20세 무렵 웨스트버지니아주의 광산에서 일을 시작했다. 1990년 클라인그룹을 세워 본격적으로 자신의 석탄광산 사업을 시작했다. 클라인은 생전 다양한 자선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자선가로도 잘 알려졌다. 그는 2011년에 자신이 소유한 재단을 통해 웨스트버지니아대 의과대학과 체육학부에 500만 달러(약 58억 원)를 기부하기도 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부음

▲양기찬(솔리드 컴퍼니 대표) 씨 별세, 한금자 씨 남편상, 양유진·소진 씨 부친상, 양기석(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기범(㈜ KDFS) 씨 형제상, 배상연(삼성전자 과장) 씨 장인상 = 7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02-2227-7591

▲김지상 씨 별세, 김홍식(주 영국대사관 재경관)·민식(현대차증권 경영전략팀장) 씨 부친상 = 7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9일 오전 6시45분, 02-2258-5940

▲손순명 씨 별세, 양홍식(전 대신증권 상무지점장)·홍제(대신증권 컴플라이언스부 부장) 모친상 = 6일, 광주 광산구 광주수원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8일 오전 9시, 062-959-4444

등하굣길 안전 벽화 그리기 BGF, 가맹점주와 봉사활동



BGF리테일은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수원서부경찰서와 함께 함께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6일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구운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활동에는 ‘아동 안전’을 주제로 BGF 자원봉사 동호회 임직원과 지역 CU가맹점주 및 가족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초등학교 자녀와 봉사활동에 참석한 CU부곡중앙점 이소연 점주는 “재미있게 벽화를 그리며 아이에게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현대차가 키운 사회적기업 ‘이지무브’ 대통령표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2010년 설립 이후 지속 성장

현대자동차그룹이 육성한 사회적기업이 설립 9년 만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7일 현대차그룹은 사회적기업 이지무브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상은 5일 대전 수성구에 자리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포상 수여식’에서 진행됐다.

이지무브는 현대차그룹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2010년 6월 설

립한 국내 최초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술 개발 및 기구제조업체다.

관련 기술 부족으로 과거 높은 가격대의 수입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해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보조기기 보급률을 높여왔다. 이를 위해 지난 9년간 이지무브가 새롭게 개발한 기술과 디자인 등 인증·특허 건수만 40여 건에 달한다. 주력상품으로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후방 진입형 휠체어 슬로프 △전동보조

‘조종사가 되려면…’ 대한항공 청소년 대상 진로특강

대한항공이 6일 서울 공항동 본사 및 객실훈련센터에서 초등학교생 80명을 초청해 ‘청소년 항공교실’을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청소년 항공교실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대한민국항공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항공 관련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전날 대한항공 현직조종

사로부터 민간조종사가 되는 길에 대한 직업진로 특강을 들었다. 학생들은 이날 대한항공 본사를 직접 방문해 △통제센터 △정비격납고 △비행훈련장치(시뮬레이터) △객실훈련센터 등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항공교실의 백미는 A380 및 B747 기종 시뮬레이터 조종 체험이었다. 2인 1조로 실제 조종사들이 훈련하는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교관의 지도하에 이



기구 △이동 보조기기 △긴급 피난 대피기구(KE-휠체어)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차그룹은 이지무브의 연구개발활동 촉진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는 한편, 2016년부터 3년간 이지무브의 의료용스쿠터 380여대를 구매해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 기증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함께 힘쓰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착륙과 돌발 상황에서의 조종을 체험했다. 13일에는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2차 항공교실이 개최될 예정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인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 고재영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유혜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승진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재홍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전보 △김태현 ◇상임위원 임명 △최훈 ◇국장급 전보 △금융정책과장 이세훈 ◇과장급 전보 △위원장 비서관 고상범 △산업금융과장 선욱 △금융분쟁대응TF단장 전요섭 △행정인사과장 김성조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윤상기 △자본시장과장 손영채 △공정시장과장 김연준 △금융정책과장 손주형 △구조개선정책과장 성기철 △기업구조개선과장 진선영 △은행과장 유영준 △전자금융과장 이한진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과장 주흥민 △정책홍보팀장 조문희 △FIU 기획협력팀장 김수호 ◇과장급 파견(전보)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지배구조팀장 손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김상봉 ◇전보 △처장 비서관 임형호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 김명호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 김남수

◆경찰청 ◇경무관 전보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서범규 △ “ 정보보심의관 이종호 △ “ 차지경찰추진단장 고기철 △ “ 국정기획상황실 파견 최종문 △ “ 국무조정실 파견 정용근 △ “ 치안정책과 파견 김희규 △경찰대 교수부장 이상률 △경찰수사연수원장 강형수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윤동춘 △ “ 생활안전부장 송병일 △ “ 수사부장 김갑식 △ “ 교통지도부장 김종보 △ “ 정보관리부장 이문수 △ “ 보안부장 김순호 △ “ 경찰관리관 김준철 △ “ 기동단장 이광석 △부산지방경찰청 제2부장 전창학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김한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2부장 반기수

◆산업은행 ◇본부장 △연금신탁본부 조지상 △강남지역본부 정병철 ◇부·실장 △PE실 임용성 △금융전산부 구영남 △e

-뱅킹전산부 조용주 △총무부 유철희 △연금사업실 박운선 △지점장 △강남 김형운 △잠실 김태현 △김해 임정주 △양산 김수용 △아산 박정수

◆한국무역보험공사 ◇승진 △부사장 백승달 △혁신사업본부장 윤종배 △무역사업본부장 안혜성 △리스크채권본부장 김석희 △홍보부장 박현준 △경영평가부장 강신호 △영업총괄실장 정재용 △고객가치부장 유승희 △프로젝트금융총괄실장 김영국 △해양금융부장 이성규 △리스크총괄실장 손지모 △비서팀장(부장대우) 김용환 △안전지사장 이원석 △충북지사장 윤태진 △대구경북지사장 이성립 △경남지사장 김기현 △광주전남지사장 문정상 △인사부 소속 부서장 급양상규 △기금예산팀장 김민수 △미래전략팀장 김기래 △정보화기획팀장 김상우 △혁신심사부 책임심사역 안정철 △신산업팀장 염호창 △프로젝트기획팀장 이종호 △국제협력팀장 은종철 △발판담당수팀장 박식원 △유럽아프리카보상팀장 윤현중 △국외재권팀장 박찬근 △법무팀장 김철영 △감사실 책임감사역 서정후 △감사실 책임감사역 나

임병화 칼럼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적용하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정도다. 이 중 우리나라가 증권거래세 세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그리고 자본시장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은 증권거래세 없이 양도세만 부과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기법과 금융상품이 탄생하고 자금조달 및 가격 발견 기능 등 자본시장 순기능이 가장 잘 수행되고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확대

지난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다. 현 0.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3년 전면 폐지하는 내용과 함께 2022년부터는 주식을 포함하여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상품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최은열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최근 금융당국도 증권거래세 폐지에 공감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따르고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를 확대된 양도세를 통해 보완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현재 상장 주식의 지분 1% 또는 15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

주에 한해 부과되는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이 2020년 10억 원, 2021년에는 3억 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대주주에 포함되면 통상 20~30%의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아직 2022년 이후 양도세에 대한 추가 확정안은 없지만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라 대주주 기준이 모든 주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주식 양도세 확대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다. 지난 세법 개정 원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기존 지분 25% 이상 보유자에서 5% 이상 보유자로 확대 예정이었지만 외국 자본의 이탈을 우려해 최종안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원안 발표 후, 글로벌 지수인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와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에서 국내 양도세 확대로 인해 한국을 제외한 지수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제외됐다면 상당한 외국인 자본 이탈이 불가피했다. 실제 1998년 주식 양도세를 부활시켰던 대만에

서 과세 시작 후 거래 19일 만에 외국인 자본 이탈로 36%의 주가 급락을 맞이했고, 결국 1년 만에 주식 양도세를 폐지했던 사례가 있었다.

국내 주식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행법에서 대주주 기준은 연말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2021년부터는 12월마다 대주주 기준이 되는 3억 원 이상 주식에 대한 매도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즉, 세금으로 인한 가격 왜곡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만약 모든 주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에 비해 높은 세금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시장 유동성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도세가 거의 없었던 국내 주식의 장점이 사라져 배당률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외 주식으로의 이동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세로 전환했던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기존 투자자 이탈 방지를 위해 신고분리과세 방식으로 누진세율 적용 부담을 완화하였고 손실을 고려한 손익통산과 직전

3년간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추경호 의원 법안에는 주식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대한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안이 담겨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적용하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정도다. 이 중 우리나라가 증권거래세 세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그리고 자본시장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은 증권거래세 없이 양도세만 부과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기법과 금융상품이 탄생하고 자금조달 및 가격 발견 기능 등 자본시장 순기능이 가장 잘 수행되고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는 결국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6월 기준 작년 대비 30% 감소했고 공모 규모도 작년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신규 자본 유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핀테크 및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 등 새로운 금융기법 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증권거래세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병호의
독서산책

학창 시절 근현대사를 꼼꼼히 배웠던 기억이 없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 역사에서 사실만큼이나 해석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역사에서 해석을 둘러싼 좌우익의 첨예한 갈등이 보이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한국사에서 근현대사 부분이 취약하다. 이런 취약함이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쟁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역사를 공부했고 고교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작가 모지현의 ‘한국 현대사 100년 100개의 기억’은 3·1운동부터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역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 중요하다. 오늘날 국사학계는 워낙 민족 중심의 역사 해석이 주류이기 때문에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이 책의 역사 해석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우리 역사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소작제가 사라지다’라는 제목의 농지개혁(1950~1957)은 작가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다. 광복 당시 한국 전체 농민 84%가 소작농이었으며 농토의 63%가 소작지로 농민 대부분이 지주의 농사를 대신 짓고 있었다. 많은 논란과 밀고 당기기가 계속된 끝에 대한민국 정부는 3정보(9000평) 이상의 농지를 지주로부터 구입해서 소작농에게 파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실시한다. 한국의 농지개혁은 신생 독립국의 앞날을 비추는 서광이었다. 그렇지만 우리 역사계에서는 이 같은 눈부신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드물다. 작가는 농지개혁의 의의에 대해 말한다.

“한국전쟁 전에 농지개혁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토지의 무상분배를 선전하는 북한 점령군에 대해 남한의 농민들은 적극적 지지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면 전쟁은 북한

이 승리하며 조기에 끝났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너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역사책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토지개혁이란 이름으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가치를 내걸었던 북한판 농지개혁은 현대판 노예제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혁이었다. 엉터리 개혁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저자 역시 현재의 분위기에 지배당하는 듯한 서술을 한 부분을 만나는 일도 있다. ‘4·3항쟁’이란 용어 앞에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구나!’라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4·3사건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이렇다. ‘항쟁’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순간 그 사건은 미화될 수밖에 없다. 선후를 따지자면 4·3사건은 남로당의 사주에 의해 신생 독립국가에 반기를 든 사건이다. 그러나 근래 우리 사회는 인과관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주장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가 되었다. 하기가 좌익의 선봉장 격인 김원봉에게조차 서훈을 주어야 한다고 생

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남로당 활동을 했던 기록이 명백한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임명하는 세상이 됐으니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시각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른 설명을 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자는 비교적 긍정적인 해석을 더한다. “남북정상은 10·4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또는 4차 정상회담 등 8개 항목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런 호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담들은 전체주의자들의 핵 개발을 완성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철저하게 악용돼 온 것이 사실이다. 책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경제성장을 해도 민주화를 해도 그에 대한 위협 명분이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이 되지 않기를”이라는 약간의 걱정을 더한다. 전체주의자들은 항상 평화를 이용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한반도 지배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공병호연구소장

· 모지현 ‘한국 현대사 100년 100개의 기억’

이승만 정부가 소작제를 폐지한 까닭은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존 데이비드 록펠러 명언

“성공의 비밀은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행하는 것이다.”

미국 역사상 최고 부자. 미국 정유소 95%를 지배하는 스탠더드오일 트러스트를 조직, 석유사업에서 생긴 거액의 이윤을 광산, 산림, 철도, 은행 등에 투자해 거대 자본을 형성했다. 거금을 기부해 사카고대학을 세웠고, 록펠러재단을 설립해 병원·학교 등 자선사업과 후원 사업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오늘은 그의 생일. 1839-1937.

☆ 고사성어 / 주이불비(周而不比)

진실에 더 잡아 두루 공평하게 사귀면서 편파적인 봉당(朋黨)은 만들지 않는다는 뜻. 주(周)는 ‘충신(忠信), 무소불애(無所不愛)’, 비(比)는 ‘아당(阿黨, 아첨), 이해타산’을 의미한다. “군자는 보편해서 편당치 아니하고, 소인은 편당하고 보편치 아니 하니라[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 출전은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

☆ 시사상식 / 시나리오 플래닝(scenario planning)

주요 이슈를 선택한 뒤 이 이슈를 기준으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가장 나쁜 시나리오,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미래를 예측 분석해 전략적 대안을 미리 수립하는 경영 기법이다. 당면 이슈 도출, 이슈별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추출, 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요인 선정 및 시나리오 조합, 대응전략 수립 및 모니터링 등 통상 총 6단계로 전개된다.

☆ 유머 / 현명한 아내

신호위반에 걸려 경찰이 다가오자 아내가 남편을 마구 때리며 잔소리를 퍼부어댔다. “신호등 곧 비뚤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브레이크는 고치라는 데 왜 아직 안 고친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내 말을 도통 안 들으니 이런 일이 생기잖아.”

스티커를 붙다 말고 경찰이 다가와 남편에게 한마디했다. “그냥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는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보복을 위한 첫 번째 카드이다. 이것만으로도 한국 제조업은 비상이 겠겠다. 모두 한국 제조업의 주력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이들 세 제품의 수출을 막아서면서산업의 가치 사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 제조업의 급소를 제대로 겨눴다.

한일 간 통상 구조를 보면 소재·부품 경쟁력 저하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64년 두 나라가 수교했을 때부터 소재·부품은 대일(對日) 적자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소재·부품 분야에서 본 대일 적자만 90조 원에 육박한다.

기자수첩



박 중 화 정치경제부/pbell@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또 당한다

변화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마다 여러 대책을 세워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을 국산화하겠다고 나섰다. ‘소재·부품 발전 기본 계획’만 4차례나 나왔다. 그때마다 1조~2조 원이 투입됐지만 핵심 제품은 보다시피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

다. 공급 기업엔 핵심 소재·부품을 개발할 원천기술과 자금이 부족했고, 수요 기업엔 국산화를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던 탓이다. 정부도 자금 지원 이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주저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넘

을 카드로 소재·부품 국산화를 꺼내들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에 해마다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대규모 투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업의 참여다. 정부가 기업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소재·부품 국산화는 이번에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끝난다. 규제 개혁부터 세제 혜택, 테스트 베드 마련까지,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건 다 해 봐야 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우리 정부가 짚은 것만 100가지라고 한다. 세 품목처럼 대부분 소재·부품으로 알려졌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일본이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달라지지 않으면 또 당한다.

금리인하, 이왕 할 거면 7월에 하라

한국은행 금리인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은 내부적으로는 조동철·신인석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를 비롯해 기존 매파(통화긴축파)로 분류됐던 고승범 금통위원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 정부도 추가경정예산편성과 맞물려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를 강조하고 나섰다.

경제구조는 다르지만 우리와 같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호주는 두 달 연속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렇잖아도 미국 연준(Fed)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완화기조를 강화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자칫 경상흑자와 물가상승을 위해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소위 통화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 통화정책에 민감한 채권시장은 이미 두 번의 금리인하를 반영 중이다. 4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416%까지 떨어져 환매조건부채권(RP) 7일물을 타깃으로 하는 한은 기준금리(1.75%)와의 금리역전 폭을 33.4bp(1bp=0.01%포인트)까지 벌렸다. 이는 사상 최대 역전 폭으로 한은이 한 번(25bp) 금리인하를 한 것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다.

반면 금리인하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실제 반도체 단가 하락과 수출부진,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둔화 등에 대내외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다. 통화정책으로 반도체 경기를 살릴 수도, 미중 무역분쟁을 멈추게 할 수도 없다.

저인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논란이 많다. 5월 금통위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

데스크칼럼

김 남 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물가안정은 통화정책의 기본 책무이며 △학계의 주류 견해라는 점 △낮은 인플레이는 유동성합정 내지 제로금리하한(ZLB·Zero Lower Bound)에 진입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반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측에서는 △구조적 요인에 상당 부문 기인한다는 점 △추가 완화는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시중에 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자금을 더 푸는 금리인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렵다. 실제 4월 기준 본원통화만 175조 원(평잔기준)에 달한다. 한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동성 크기를 측정하는 광의유동성(L)도 사상 처음으로 5000조 원(계절조정 말잔기준)을 돌파했다.

결국 이번에 금리인하가 이뤄진다면 대내외 경제상황이 부진한 가운데 한은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리인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안다. 다만 정부도 추경을 편성하는 등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한은이 그것(금리인하)이라도 하지 않고 뭐하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금리인하

라면 차라리 이달(7월)에 단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우선 그 효과가 비교적 단기간에 나타나는 추경 등 재정정책과 달리 통화정책은 파급시차가 길다. 폴리시믹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통화정책이 한발 먼저 움직여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제대로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한은이 먼저 금리인하를 단행함으로써 도리어 정치권을 압박할 수도 있다.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8월 인하 가능성이 대세다. 이달 말 열릴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를 확인한 후 한은이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기 때문이다. 웅색할 수 있겠지만 한은 입장에서는 그나마 선제적 대응이라 주장할 수 있다.

인하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2명 이상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이주열 총재의 기존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물론, 2회 이상 금리인하 가능성을 엿보며 일방적으로 쏠렸던 시장 기대를 되돌릴 수 있다. 자칫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는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올라준다면 은행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투자심리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금리인하로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 이후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5일 물가설명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재의 기준금리로 볼 때 통화정책에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력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며칠에 불과하긴 했지만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 바 있다. kimnh21c@

사설

日 보복에 허둥지둥 정부, 정말 답답하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5대 그룹 총수와 만났다.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들의 회동도 예정됐다. 재계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입장을 밝힐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곧 단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다급한 상황을 반영한다. 한·일 간 무역분쟁의 전환점 마련을 위한 정부 메시지와 대응책이 무엇인지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대할 만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게 사실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번 수출 규제를 우리 대법원의 과거 일제(日帝)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결부시키며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외교사안을 통상으로 결부시킨 만큼 해법 또한 복잡할 수밖에 없다.

국가 간 외교갈등과 정치적 문제로 통상 규제를 가하는 일본의 행태는 정말 저열(低劣)하고 부당하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국내 주력 산업의 심각한 피해와 한국 경제에 대한 충격은 현실이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다. 일본은 이제 첫 단계 보복 조치를 시작했을 뿐이다. 수출을 통제할 겨우 세 가지 부품과 소재만으로도, 우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이를 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시도한 것이다.

문제는 단기간 내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베는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한국을 자신들이 정한 안보우방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했다. 통관의 편의를 없애고,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동한다는 의미다. 과거 그들의 적성국가에 가했던 제재이고 보면, 한국과 전면적인 충돌까지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한국 기업의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치가 반도체 메모리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주고, 부품 조달 차질에 따른 전 세계 산업의 파동을 가져올 소지가 크다.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계시장 D램 점유율은 70%, 낸드플래시는 50%에 이른다. 단적으로 일본의 대표적 기업인 파나소닉과 소니 또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점까지 계산에 넣었다고 봐야 한다.

이제야 정부가 허겁지겁 기업들을 불러모아 대책을 마련한다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예고됐던 일본의 통상 보복을 허투루 넘겼던 정부의 무능과 전략 부재만 드러낼 뿐이다. 수입선 다변화니, 부품 국산화니 하는 대책은 수십 년 전부터 강조돼 왔고, 하루가 급하게 수요 물량을 조달해야 하는 지금 하나 마나 한 얘기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위기를 넘겨야 할 사안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당장 서둘러야 할 일은 외교적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문선영의 異見



자본시장1부 차장

“돈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Pecunia non olet).”

로마 제국의 아홉 번째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오줌세(vectigal urinae)’를 부과하자 반대파들은 비웃었다. 아들 티투스마저 “냄새나는 오줌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그러자 황제는 오줌세로 거둔 금화를 티투스의 코끝에 들이대며 “이 금화에서 냄새가 나느냐?”고 물었다. 당연히 냄새는 나지 않았고, 황제는 “돈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맞는 말이다. 돈은 그 자체일 뿐이며 가치가 원천에 의해 더럽혀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돈을 다루는 자본시장은 어떨까. 과연 자본시장에서 돈의 ‘순수한 가치’가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혹자는 말한다. 돈에 정의는 없다

돈과 정의

고. 이 역시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정의’가 없다고 해서 돈을 정의롭게 다루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이 YG엔터의 지분을 기존 5.66%에서 6.68%로 늘렸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의 공시 의무가 발생한 시점은 5월 17일, 버닝썬 사태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시점이었다.

YG엔터의 주가가 실적 대비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에서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씹쓸함을 감출 수는 없다. 투자에 있어 실적 등 재무적 판단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 맞다. 그러나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각종 논란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논란이라는 것도 소속 연예인의 마약 의혹과 회사 대표의 성접대 의혹 등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심각히 결여된 중범죄 수준이다.

최근 10년 사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수많은 나라들이 연금금을 통해 맹목적 수익 추구 대신 공익적 요소 등 비재무적 기준을 고려해 투자하는 자금 운영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다.

비단 국민연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YG엔터를 커버하는 증권사들도 최근 일련의 사태를 그저 지나가는 ‘이벤트’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한 증권사는 이번 사태를 ‘노이즈’로 표현하며 기업의 손상된 이미지가 회복될 이후의 성장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조언했다.

한 유명 정치철학자는 “경제학자들은 시장은 교환되는 재화(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흔적을 남긴다. 때때로 시장가치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비시장 가치를 밀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변질된 시장 가치에 돈의 가치마저 흔들리고 있다. 시장에 끊임없이 ‘정의’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다. moon@



돌파구(突破口)와 분수령(分水嶺)

6월 30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미 정상의 회동이 북·미 간 대화 재개의 돌파구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분수령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돌파구와 분수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돌파구는 突破口라고 쓰며 각 글자는 ‘갑자기 돌(突)’, ‘깨부술 파(破)’, ‘입 구(口)’라고 훈독한다. 突은 ‘구멍 뚫(穴)’과 ‘개 견(犬)’이 합쳐진 글자로서 개가 ‘개구멍’을 뚫듯이 전에 없던 ‘구멍을 파서 뚫다’가 원래 뜻이다. 그런 구멍은 갑자기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갑자기 돌’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돌파구는 원래 “견고한 진지 등의 한쪽을 뚫어서 만든 공적으로”라는 뜻이었는데 나중에 비유적으로 뜻이 확대되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그동안 북·미 간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하여 2~3주 내에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데에 합의했으므로 협상의 돌파구를 연 것이 분명하다.

분수령은 分水嶺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나눌 분(分)’, ‘물 수(水)’, ‘고개 령(嶺)’이라고 훈독한다. 글자대로 풀이하자면 ‘물길이 갈리는 고개’라는 뜻이다. 비가 내리면 고개의 능선을 사이에 두고 내린 빗물이 흐르는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 왼쪽 경사면에 내린 비는 왼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 고개가 바로 분수령이다. 뿐만 아니라, 계곡을 타고 내려오던 물도 고개를 만나면 또다시 물줄기가 갈라지게 되는데 이처럼 물줄기를 갈라지게 하는 장애물로서의 높은 고개도 역시 분수령이라고 한다. 따라서, 분수령은 “어떤 사실이나 사태가 발전하는 전환점 또는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대화의 돌파구를 열었으니 이 돌파구가 북·미와 남·북이 과거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함께 가는 분수령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어제 엄마랑 은행에 갔습니다”
엄마가 손만 대니까 돈이 나왔어요!



[손으로 출금 서비스]

국내 금융사 최초, 손바닥 정맥 인증 창구 출금 서비스

통장, 도장, 신분증 없이도 금융이 쉬워지도록
창구거래는 손바닥으로 해결하고, 행복한 일상만 즐기세요

누리세요, KB가 만드는 새로운 금융생활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b KB금융그룹